

7일 Market Index			
↑ 코스피	2564.63	↓ 코스닥	733.52
	(+1.12)		(-9.79)
↓ 금리 (미국 9년)	2.922	↓ 환율 (원-달러)	1394.35
	(-0.038)		(-1.85)

“모든 것이 제 불찰... ‘김 여사 특검’은 정치선동”

尹 대통령 대국민 담화

구체적 언급 없이 고개숙여 사과 김건희 여사 국정관여 의혹 반박 야권 특검 재발의 땀 ‘거부’ 시사 “반대진영으로부터 악마화” 고수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은 총 140여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담화 중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명태균 씨나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에는 상세한 설명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엇에 대해’ 사과를 하겠다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또 야권의 특검 공세에는 ‘정치선동’이라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아, 야권이 특검을 재발의해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10분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8월 29일 이후 70여일만에 기자들 앞에 선 윤 대통령은 준비해 온 대국민담화를 약 15분간 읽은 후, 125분에 걸쳐 총 27개의 질문을 받고, 이에 대답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그간 불거졌던 의혹과 관련해 “저의 진심,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께 걱정 끼쳐 드린 일도 많았다.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다”며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기자회견은 주제와 시간에 제한 없이 진행하겠다고 예고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취재진의 질문은 명태균 씨의 녹취, 이와 관련한 2022년 6·1 국회 의원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논란 등에 대한 입장 등에 집중됐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김 여사에 처신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국정운영 관여 등 야당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국정운영 관여에 대해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도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에게 욕 안 먹기를 바라는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그건 국어사전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 명 씨 등 외부 인사와 접촉한 데 대해서도 “앞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운을 떼면서 “대외활동이야이제 제2부속실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제 아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순진한 면도 있

다”고 적극 설명했다.

특히 김 여사가 지지자들의 문자에 답장을 대신 해주던 일화를 언급하면서 “조금이라도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인연을 딱 못 끊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본인 책임이라고까지 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정치적 반대진영으로부터 ‘악마화됐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관련 질문에서 “검찰총장을 할 때부터 저를 타깃으로 하는 거지만 저의 집사람도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깃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것은 있다”고 했다.

이는 김 여사를 향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도를 담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어진 발언에서도 윤 대통령은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계속 강조했다.

아울러 김 여사 특검법이 또 다시 국회에서 넘어올 경우를 묻자, 야당의 공세를 ‘정치선동’으로 규정하고 특검법의 위헌성을 설명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와 질답에서 여러 차례 ‘사과’, ‘제 책임’이라고 언급했지만, 어떤 것에 대해 사과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2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최상목 부총리 “트럼프 당선인 정책 현실화 땐 韓경제 영향 상당”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진)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미국 선거 결과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수준의 파급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5일 치러진 미국 대선 결과, 트럼프 후보가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인 사실상 확정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 온 정책기조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국내의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미 대선·개표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에, 오는 8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이번 선거 및 FOMC(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이 커질 것에 대비해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등을 통해 기민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양국 간 협력채널을 가동해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업계의 목소리를 들으며 대응전략을 구체화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을 언급했다. 이어 “트럼프의 공약 구체화 과정에서 국내 산업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경제팀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관세인상, IRA 축소 우려 등 K-산업 불확실성 고조

트럼프시대 韓경제 격랑 예고

美 ‘對中규제’ ‘보호무역’ 심화 전망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수경 불가피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 산업계 등 한국경제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대적 변화를 예고한 만큼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물론 향후 투자 전략에도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관세 등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고개를 들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중 반도체와 배터리 등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계는 향후 미국 정책

변화에 따른 투자 전략 수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많은 변수를 계산하며 분주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자동차 산업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3·4·6·8면>

7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국내 산업계는 반도체 지원법과 IRA 축소 또는 폐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과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급을 비판해 온 만큼 관련 법에 따른 정책 추진에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산업은 대중국 규제를 비롯해 보호무역주의가 더 심화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지난달 25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지원법) 그 반도체

거래는 정말 나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는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자동차·2차전지 산업은 완성차 수출 관세 인상 및 IRA의 전기차 세액 공제 축소 등 영향으로 미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AMPC(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조항도 축소될 경우 한국 자동차 및 이차전지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 역시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를 ‘친환경을 빙자한 사기(Green New Scam)’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관세 도입도 우리 기업의 부담으로 작

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20%까지 인상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1기 재임 때에도 철광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중국발 공급 과잉에 시름 중인 철강업계는 트럼프 재집권으로 관세 인상, 국가별 수입 쿼터 축소 등 전통적 무역장벽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도 “미국이 한국 관세를 인상할 경우 미국 수출이 줄어들 것이고,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관세를 인상하는 경우에도 글로벌 경기가 위축돼 한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윤, 트럼프와 당선 축하 통화... “이른 시일 내 회동하기로”
- ▲ 한동훈 “이재명 1심 재판 생중계해야...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 /사진 뉴시스

- ▲ 김상훈 “당정,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추진... 정기국회 처리” /사진 뉴시스
- ▲ 박찬대 “윤, ‘박절·인정’ 괴변으로 국민 심판 피할 수 없어”



- ▲ 조국, 트럼프 재선에 “대북문제 물꼬 트는 계기 활용해야”
- ▲ 명태균 “강경경 2000만원 요구... 녹취로 상처 입은 분들께 사죄” /사진 뉴시스

‘트럼프 재등장’ 불확실성 해소 됐지만... 박스에 갇힌 증시

KRX, 코스피 소폭상승 2564.63
관세 강화에 수출은 둔화 우려돼
공약 현실화면 강달러 심화 예상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국내 증시를 짓눌러 온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나 여전히 시장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 관세 강화 등 수출 둔화 우려 확대로 국내 증시가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12포인트(0.04%) 오른 2564.63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기간 코스닥도 전 거래일 대비 9.79포인트(1.32%) 하락한 733.52를 기록했다.

전날 미국 증시가 트럼프의 재등장에 일제히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트럼프 2기 출범이 국내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코스피가 전 거래일(2563.51)보다 1.12포인트(0.04%) 상승한 2564.63에 장을 마친 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743.31)보다 9.79포인트(1.32%) 하락한 733.52에 거래를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96.2원)보다 0.4원 오른 1396.6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뉴스1

에서는 대규모 감세 등 트럼프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강달러 현상이 심화하고, 채권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여 국내 증시는 당분간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승리로 인해 코스피의 약세가 예상된다”면서 “트럼프 재정정책 중 감세

와 국제 발행을 고려하면 미국 금리 상승과 달러화 강세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화 약세를 자극해 외국인 매도 물량 출회로 이어지는 부정적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로 민간 자금이 말라가고 있어 외국인 투자까지 축소된다면 코스피는 하향 기조를 보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역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에 따라 미국 우선주의가 부각되면서 국내 증시의 경우 정치, 경제, 안보,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관세 인상이 현실

화될 경우 수출 위축이 불가피해 내년 수출 전망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증권업계에서는 당분간 업종 차별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등 경기 확장 기조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향후 트럼프의 부양·압박 순서, 중국의 대응 부양책 등이 증시 강도를 결정할 것”이라며 “지수보다는 업종 대응으로 ‘AI+규제 완화’를 기대할 수 있는 자율주행, 우주, 원전, 방산, 바이오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대선 후 정책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업종, 혹은 대선과 무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고대역 폭메모리(HBM), 전력기기 등 인공지능(AI)주, 방산주, 금융주를 대응 업종으로 제시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트럼프 리더십, 세계 경제번영 기여할 것” “민간소비 증가세 낮아... 구조개혁 필요”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서한·논평
최태원 “양국 협력기회 창출하고
파트너십 굳건해지도록 노력할 것”

대한상공회의소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재선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당선인에게 축하 서한을 보내는 등 경제단체들이 양국의 경제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서한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하고 결단력있는 리더십이 미국 경제회복을 가속화하고, 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축하를 전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지난 70년간 굳건한 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긴밀한 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며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미국 제조업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아울러 “대한상의는 미국 경제계의 오랜 파트너로서 양국 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미국 기업은 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론 정부 기관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양국의 협력 기회를 창출하고, 오랜 파트너십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내년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리는 경제인 행사도 주재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논평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가 철통과 같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FTA 토대 아래 양국 경제협력도 확대·발전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한경협은 “특히, 양국 경제 관계의 핵

심 축인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과 교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투자 및 통상환경을 조성해주길 기대한다”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인한 새로운 변화 속에서 한국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기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보다 정교한 민관협력체제로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미국 상의와 한미간 최고 위급 민간 경제협력 채널을 운영하는 한국의 대표 대미경제 창구로서 양국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 과학기술 경쟁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새로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양국 동맹을 한 차원 더 고도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길 기대한다”면서 “한국 중소기업에도 양국 번영과 우호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KDI, 소비둔화 요인과 시사점
“코로나19 이후 추세적 둔화 우려
정부소비 확대, 소득증가 연결 안돼”

민간소비가 ‘추세적 둔화’에 접어들었다며 중장기적으로 수출경쟁력 확대를 비롯해 구조개혁 등이 요구된다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의 복지 관련 지출이 늘어난 반면, 국민들의 사회보장기금 부담 등으로 소비 여력이 축소됐다고 봤다.

KDI는 7일 발표한 ‘중장기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의 요인과 시사점’에서 지난해 2분기 이후 민간소비의 평균 증가율이 1% 안팎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7~2019년 평균치인 2.8%를 하회한 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코로나19 이후 민간소비 증가세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추세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부진에 대해선, 고물가 등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한국을 비롯해 대부분 선진국에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명목 총소비의 비중은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하지만 비중이 일정함에도 실질 소비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개인 소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라는 것이다.

“정부소비의 증가, 잠재성장률 둔화 등 구조적인 요인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이 보고서의 진단이다.

KDI의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인 김준형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정부소비는 소득증가로 이어지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소비 확대가 곧 소득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 등 정부지출 확대로 국민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 등이 늘어나 민간의 소비 여력이 축소되는 것”이라고 했다.

2% 내외에 머물고 있는 성장률도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잠재성장률과 함께 소비 증가세도 둔화되는 것은 물론, 생산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1% 중후반까지 주저앉을 수 있다고 봤다.

또 “소비재 가격이 투자재나 수출품 가격보다 빠르게 올라간다면 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실질 민간소비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는 “상대가격 변화는 2001~2023년 실질민간소비 증가율을 연평균 0.4%포인트(p) 끌어내렸는데 이는 교역조건 추세의 하락에서 대부분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비율 소폭 하락

금감원, 비율 184.3%로 9.4%p ↓

올해 상반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소폭 하락했다. 특히 기업집단 중 교보가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말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184.3%를 기록해 지난해 말 193.7% 대비 9.4%p 하락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두 개 이상의

금융업을 동시에 영위하면서 자산총액 합계가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들은 금융당국에 의해 지정·관리되며 100% 이상의 자본적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자본적정성 비율은 통합필요자본 대비 통합자기자본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를 나타낸다.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등록된 곳은 삼성, 한화, 교보, 미래에셋, 현대차, DB, Dau키움 등 7곳이다.

7개 집단의 통합자기자본은 178조 5000억원으로 전년말(175조 7000억원) 대비 2조 8000억원가량(1.6%) 증가했다. 통합필요자본은 90조 7000억원에서 96조 9000억원으로 약 6조 2000억원 늘어 자본적정성 비율 측면에서는 하락했다.

통합필요자본은 96조 9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6조 2000억원(6.8%) 늘었다. 이는 보험계열사 주식위험 등 시장위험액 증가, 해외계열사 자산규모 증가에 따른 필요자본 증가 등 때문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창원공단 논란은 모략... 사과문제 아냐”

>> 1면 ‘尹 대통령 대국민 담화’서 계속

기자회견 말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지 명확히 설명해달라”는 취지의 질문에도 “제가 대통령이 돼서 기자회견을 하는 마당에 그 팩트를 가지고 다룰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말을 아꼈다.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처신이 올바르지 못했고, 대통령 부부의 소통 프로토콜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 불필요한 얘기를 해서 (논란이) 생긴 것이니 사과했다”면서도 “창원 공단 이런 건(이런 논란은) 사실도 아니고, 모략이기에 사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

완성차업계, 현지 생산·기술개발 주력... “관세부담 최소화”

산업계 전망

현대차그룹, 美 생산 본격 추진
GM 등 현지 기업 파트너십 활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기간 동안 강력하게 내세운 부분은 ‘관세 정책’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도 관세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완성차 업계의 관세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현대차그룹은 미국 내 충분한 생산 거점을 보유하고 있어 관세 압박을 최소화할 것이라 진단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 기간에 수입품에 대한 10~20%의 관세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펼쳤기 때문이다. 중국산 수입품처럼 60% 관세율은 아니어도 한국 완성차 업계가 관세 부담에서 자유롭긴 어려울 것이라 관측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기아는 미국 내 생산 거점을 최대한 활용해 관세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현대자동차는 지난 9월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GM)와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당시 정의선 회장(왼쪽 네 번째)은 “현대차와 GM이 글로벌 주요 시장 및 차량 세그먼트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자동차그룹

다르게 책정 될 수 있어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현대차그룹은 기존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연산 36만대), 기아 조지아 공장(연산 34만대)에 더해 조지아주에 구축한 연산 30만대의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도 가능한 상태다. 이들 거점을 활용한 현지 생산을 통해 관세 폭탄을 피할 것이라 기대감이 나온다.

또 최근 현대차가 미국 3대 자동차 기업 제너럴 모터스(GM)와 신차를 공동

개발·생산하고 배터리 같은 공급망까지 공동 관리하는 포괄적 제휴 관계를 맺은 것과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 자율주행기업 ‘웨이모’와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 현지 기술 개발에 대한 부담감도 줄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부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전면 폐지하진 못해도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 축소 등은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트럼프 선거에 올인한 테슬라의 엘런 머스크에게 보이지 않는 특혜 정책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운행허가 등 다양한 제도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결국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테슬라 전기차가 독주 체제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대차그룹의 마케팅 전략은 가성비 높은 전기차와 강력한 판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조합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며 “트럼프 2기 집권 시기가 시작된 만큼 단점이 크게 보이지만 냉정하게 판단하고 치밀하게 준비하면 단점을 장점으로 회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트럼프 1기 행정부 고위 관료들을 영입한 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의 소통은 원활한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 국방성 법제처 차관보로 일했던 로버트 후드를 워싱턴사무소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올해 1월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주필리핀과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맡은 성김전 대사를 고문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현대차그룹은 트럼프 인맥과의 소통도 지속해 왔다. 지난 3월 트럼프 전 대통령 최측근이자 백악관 수석대변인 출신인 세라 허커비 샌더스 미국 아칸소 주지사가 방한했을 당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직접 만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정 회장은 샌더스 주지사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70억달러 칩스법 혜택 관건... 對中규제 ‘양날의 검’

반도체

바이든 행정부 천문학적 지원 약속
수혜 조건, 규모 축소 등 변수 우려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반도체 업계 선행도 잡혀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천문학적 지원금을 받기로 한 상황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인 ‘자국우선주의’ 기조로 해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강력한 대중국 규제 실행이 예상되면서 우리 기업이 손해를 입을지 혹은 반사이익을 얻을지 한치 앞을 볼 수 없게 됐다.

7일 <메트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팜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대선 승리 연설을 한 뒤 멜라니아 여사와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가장 큰 수출국으로 둔 한국 반도체 업계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새 국면을 맞을 전망

이다.

공화당 후보로 2기 행정부를 출범하게 된 트럼프 당선인은 다른 후보였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에 비해 더욱 강화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정책을 내걸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 반도체 업계는 바이든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지원금의 축소 가능성이라는 악재와 강력한 대중 규제에 따른 양날의 검을 쥐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바이든 정부가 시행한 반도체 법(CHIPS and Science Acts, CHIPS ACTS)에 대해 꾸준히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반도체 법은 지난 2022년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내에 제조시설을 설립하는 반도체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

공하는 법안이다. 총 2800억 달러의 투자금이 투입되는 해당 법안은 해외 주요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연구·제조시설 설립을 통해 미국내 반도체 산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법을 근거로 합쳐서 70억 달러(10조 원) 수준의 지원금 및 세제혜택을 받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연구, 개발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 생산기지는 미국내 고객사와의 만남을 수월케하고 영업을 위한 발판 역할까지 할 예정이었다.

한국무역협회는 리포트를 통해 “트럼프 재집권시 지원법이 지속될 수 있

지만 보조금 수혜 조건의 추가와 동아시아 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 축소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법의 수정 방향과 대중 제재가 맞물리며 오히려 우리 기업에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일본과 대만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고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만큼 오히려 우리나라가 프렌드쇼어링(우호국 내 생산)으로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법에 의해 선정될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에 적극 참여해 미국 주도 기술개발 협력 체계에 편입하되, 다른 국가와 독자 협력체계 구축을 병행해야 하는 게 과제”라며 “반도체 제조 기술이 동맹 보호 조치를 이끌어내는 ‘생존기술’로 가능하게끔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무역 규제 등 정책대응 속도... 시장 다변화 ‘투트랙’

배터리·철강

수출입 비상대비 태세 갖춰

배터리와 철강산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트럼프 2기 정부의 경제 정책과 무역 규제 강화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와 철강업계는 경제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발 빠르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배터리업계, 위기 대응책 고심

무엇보다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은 배터리업계다. 트럼프는 화석연료와 내연기관 자동차에 우호적인 만큼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와 미국 내 배터리 생산·판매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대선 기간 중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국내 배터리업계는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IRA에 따른 혜택을 받으며 영업이익에 AMPC가 반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금이 축소될 경우 수익성에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고 있어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기차 시장 둔화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미국 내 고물가의 원인이라고 비판하며 미국 내 화석 에너지 개발과 석유 및 가스 시추를 확대할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관련 혜택 감소로 기업 타격이 우려된다”며 “IRA 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전기차 보급이 지연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미래 수익을 기대하며 추진한 미국 내 투자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 말했다.

현재 한국의 자동차와 배터리업계는 미국 공장 설립 등으로 60조 가량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재집권에도 IRA 전면 폐기는 현실 가능성이 적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IRA시행 이후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를 해온 만큼 정책을 바꾸기는 다소 어렵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트럼프의 재집권에 따라 중국 등 한국의 경쟁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환경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 “수출 전략 새롭게 짜야”

철강사들도 비상 대비 태세를 갖춘 것은 마찬가지다.

트럼프는 중국이 막대한 보조금으로 저가 철강제품을 과잉 생산해 무역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중국

견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폭탄은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을 촉진시켜 국내 철강사들에게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2기 공약에 제시된 무역 관련 정책은 크게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와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10% 기본 관세 부과의 2가지가 핵심이다. 철강을 포함한 중국산 수입 물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60%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중국산 철강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관세와 수출입 규제 등 무역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 시장 다변화하는 전략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비트코인 대통령’ 귀환에 7만6000달러 돌파... 연일 최고가

출렁이는 가상자산 운명

대선 불확실성 해소, 비트코인 급등 투자자들, 연말 9만달러 돌파 기대감 4분기 추가 상승 가능성 투자심리 ↑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성공으로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또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가상화폐에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 가격은 연말까지 9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7일 가상자산 시장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7만5400달러대에 거래되면서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장중 한때 전일 대비 9.43% 오른 7만6033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전날 7만5300달러를 기록해 지난 3월 14일 기록한 최고가(7만3750달러)를 경신했지만 하루 만에 기록을 갈아치웠다.

비트코인 폭등은 트럼프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 대선 승리 소식에 비트코인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7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이 미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수개월간 지속되어 온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걷힌 것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앞서 비트코인은 지난 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소식에 6만5000달러까지 하락한 바 있다. 이후 개표 초반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

면서 7만달러를 회복했고 당선이 확정되면서 최고가를 경신했던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 유세 기간 가상화폐에 대한 친화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지난 7월 열린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서는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말라”(Never sell your bitcoin)는 발언과 함께 비트코인을 국가 준비금으로 삼아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상화폐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친비트코인 대통령’을 공언하면서 비트코인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산업 전체에 도움이 되는 투명한 규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기대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후보 당선으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면서 연말까지 9만달러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과거 비트코인 반감기와 미국 대선 이 맞물렸던 2016년과 2020년에는 대

선 이후 연말까지 각각 153%, 130%의 상승률을 보였다. 통계적으로 4분기에 의미 있는 상승을 보였고 다음 해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가격이 상승한 상태에서 반감기와 미국 대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연말까지 100% 넘는 상승률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트럼프 일가가 주도하는 탈중앙금융(디파이) 프로젝트가 최근 출시됐고 트럼프 당선인을 모델로 한 대체불가토큰(NFT)이 출시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연말까지 9만달러는 무난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은행 번스타인의 분석가 고탐 추가니는 “트럼프 승리 시 비트코인이 새로운 고점을 되찾을 것”이라며 “4분기 비트코인이 9만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원·달러 환율 7개월 만에 1400원 돌파... ‘레드 스윙’ 기대감에 초강세

(공화당, 상·하원 선거서 압승 시나리오)

트럼프 효과, ‘킹달러’ 귀환

레드 스윙 가능성에 달러 가치 급상승 엔·달러 환율도 슈퍼엔저 수준 복귀 외환당국 “환율 과도히 변동 시 대응”

미국 대통령 선거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달러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달러당 1400원을 넘겼고, 엔·달러 환율도 빠르게 상승해(달러 대비 엔화 가치 하락) 지난 7월 이후 최고치(엔화 가치 최저)를 기록했다.

7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6일 저녁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1.40원(1.54%) 오른 달러당 1401원으로 야간 거래(익일 오전 2시 종가)를 마쳤다. 이어 7



원·달러 환율 추이
단위: 원/달러, 종가 기준
1338.4, 1343.7, 1307.8, 1350.2, 1389.2, 1377, 1399.3 (전일 대비 ↑16.1원)
자료: 서울외환중개 /뉴시스 그래픽

일 오전 장에서도 상승을 이어가며 환율은 달러당 1400원선을 넘나들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00원을 넘긴 것은

지난 4월 16일 이후 7개월 만이다.

달러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는 것은 ‘박빙’이 예상됐던 미국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로 당초 예측보다 일찍 끝났으면서 ‘레드 스윙(공화당 상·하원 선거에서 압승하는 시나리오)’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환율에 빠르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트럼프가 앞서 내걸었던 공약(연방정부 재정확대·적대적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인상)이 실현될 경우 미국의 재정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전망도 달러 가치를 끌어 올리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해리스의 경제 정책은 현 정부인 바이

든정부의 경제 정책과 큰 차이가 없지만 트럼프는 관세 인상, 상품 제한 등 적극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며 “(해리스와 비교했을 때) 한국을 비롯한 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달러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도 지난 7월 ‘슈퍼엔저’ 당시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지난 6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 엔·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3.02엔(1.99%) 오른 달러당 154.63엔에 거래를 마쳤고, 이는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엔화 가치 최저)이다.

시장에서는 지난 2022년의 ‘킹 달러(달러 초강세)’와 올해 상반기의 ‘슈퍼엔저(엔화 초약세)’가 동시에 재현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고, 일본도 지난달 자민당의 총선 실패로 금리 인상의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다만 외환당국이 시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1400원 선에서 크게 상승하지 않을 전망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 온 정책 기조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환시장의)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나승진 기자 asj1231@

인플레이 우려에... 美 금리인하 12월엔 멈출 가능성

트럼프 정책, 변수 될까

연방준비제도, FOMC 금리 결정 인플레이션 우려로 연준 신중모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더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운 관세 인상과 이민제한 정책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독립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이 트럼프의 금리인하 요구보다 물가상승 압력에 반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준은 지난 6일부터 이들 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앞서 연준은 지난 9월 기준금리를 5.25~5.5%에서

4.75~5%로 0.5%포인트(p) 내린 바 있다.

연준이 금리결정시 물가지표로 사용하는 개인소비지출(PCE) 지수를 살펴보면 9월 기준 2.1%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3%였던 PCE 상승률은 11월 2.6%로 떨어진 뒤 10개월째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연준이 목표로 한 2%에 근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고용시장은 냉기가 감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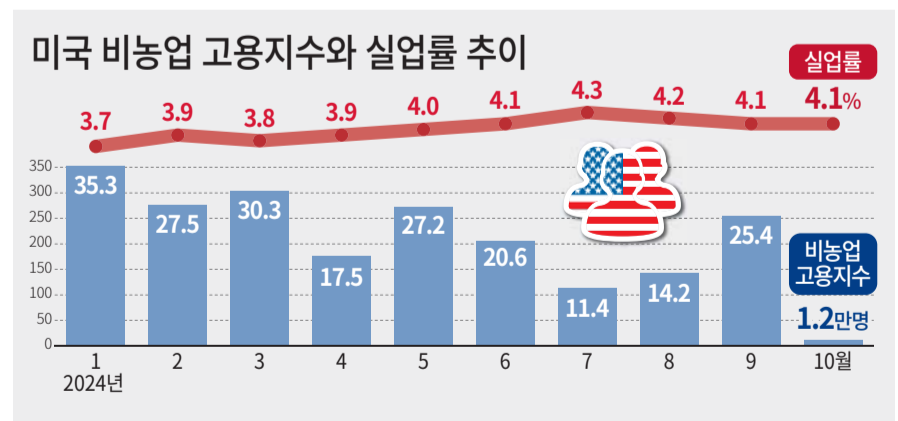
10월 기준 비농업부문의 고용지수는 전월 대비 1만2000명 증가했다. 팬데믹 여파로 고용이 대폭 감소한 2020년 12월(-14만명) 이후 3년 10개월만에 가장 적은 고용 증가폭이다. 실업률은 10월 기준 4.1%다. FOMC가 경제가 원활히 돌아갈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자연실업률 추정치는 상단기준 4.5%다. 일자리가 줄었음에도 실업률은 여전히 낮은 수

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11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10월 일자리가 최저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대형 허리케인 피해와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파업 등 일시적인 요인이라 판단에서다. 이날 시카고상업거래소(CME) 그룹 페드워치(Fedwatch)에서 금리선물시장은 연준이 0.25%p 인하할 가능성을 98.1%로 봤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인하가 올해 금리인하의 마지막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트럼프의 취임 이후 공약이 빠르게 시행되면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질 수 있어서다.

트럼프는 미국의 전체 수입품에 대해 최대 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상품에 대해서는 60%를 부과하는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 추이
3.7, 3.9, 3.8, 3.9, 4.0, 4.1, 4.3, 4.2, 4.1, 4.1%
35.3, 27.5, 30.3, 17.5, 27.2, 20.6, 11.4, 14.2, 25.4, 1.2만명
2024년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불법이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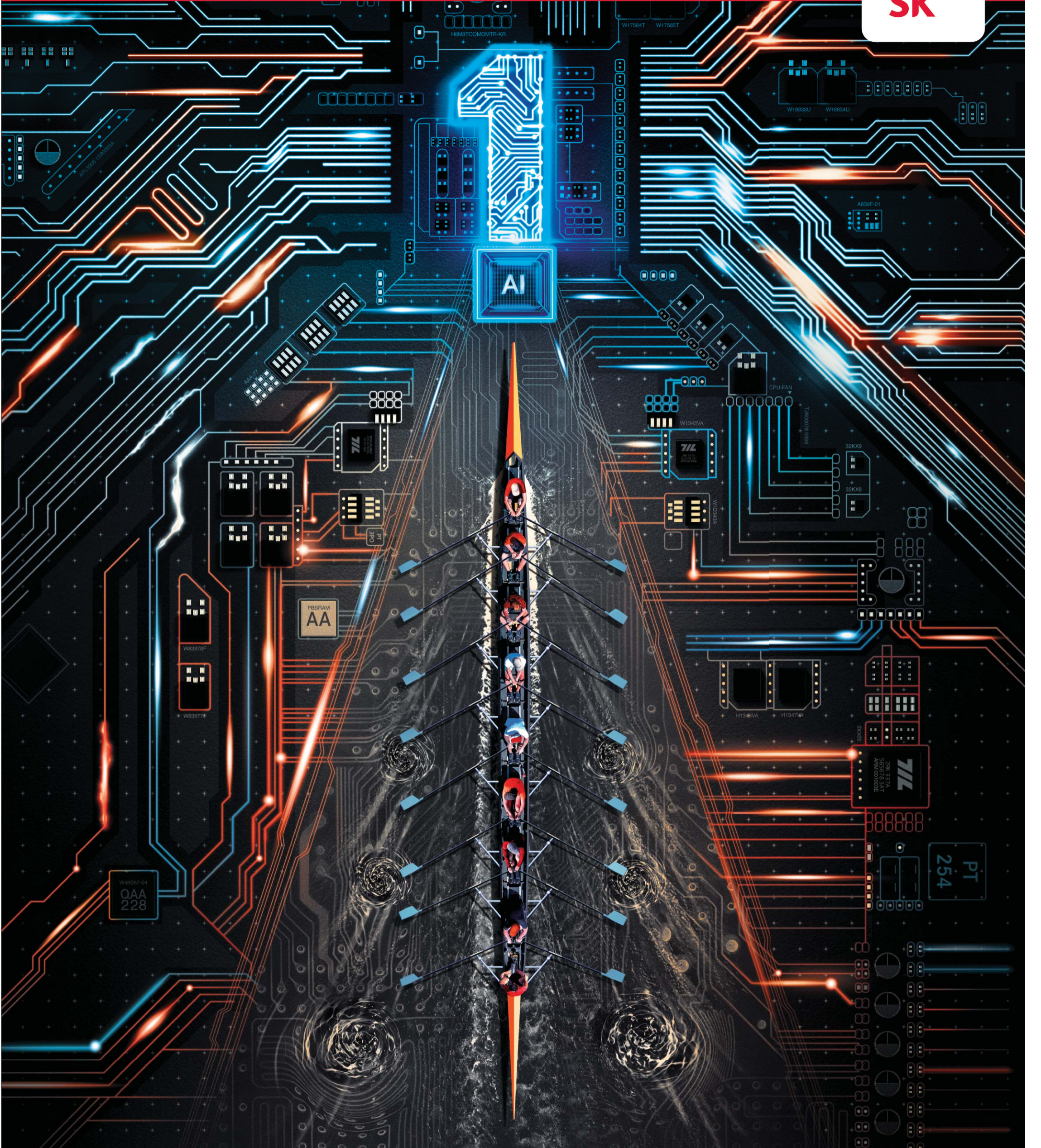
통상기업들은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오르면 관세 만큼 상품의 가격을 높인다. 결국 수입품 가격이 올라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 또 이민제한 정책을 발표하며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의 국내 추방작전”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불법 이민자와 서류 미비 이민자를 포함해 약 1500만명이 대상이다. 이들의 일자리가 공석이 되면 기업들은 임금을 높여 직원을 구해야 한다. 이 경우 임금 상승 비용이 상품·서비스 가격에 포함돼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12월부터는 트럼프 공약에 따른 물가 흐름을 지켜보기 위해 동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유리 기자 yu115@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원팀으로 AI시대를 여는 FIRST MOVER

‘中 60% 관세’ 폭탄... 韓 e커머스 업계, 양극화 심화 전망

알·테·쉬, 국내 시장 ‘눈길’

트럼프 中 규제 시 韓 가장 영향
경제난에 경쟁 치열... 이슈 부담
쿠팡 등 거대플랫폼 성장 부스터
입점한 소상공인·중소 피해 우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 재선에 성공한 가운데 국내 e커머스 업계에도 파장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중국의 과잉 생산을 우려하며 관세를 강하게 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공약에서 ‘미국산 제품’ 사용을 언급하며 전 수입품에 대한 10% 보편적 기본 관세와 60%의 대중국 관세를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정책 변화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쉬) 등 C커머스(차이나+커머스)가 전자상거래 시장 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 시장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전망돼 국내 e커머스 업계가 긴장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C커머스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질 수 있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중국 이커머스 물류 허브’ 이미지.

을 뺀더러 쿠팡 같은 거대 e커머스 기업은 오히려 성장 기회를 맞는 양극화 현상의 심화가 예상된다. 예측이 나오고 있다.

7일 미국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의 보도에 따르면 존 물레나 미국 하원 중국특위 위원장은 관세법 제773(f)(2) (1)항 (A)호를 언급하면서 “중국의 과잉생산 능력의 피해를 평가함에 있어, 상무부가 반덤핑 조사 분석의 일환으로 비용에 대한 특별 규

칙을 더 광범위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주장했다. 생산국이 생산 비용을 과소 책정했을 때 미국 무역법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주장이다.

물레나 위원장은 과잉 생산으로 인해 시장 가격이 왜곡이 생겨 타국의 산업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반덤핑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별 규칙의 광범위한 적용이 과잉 생산이 불가능한 왜곡 없는 시장의 반영을 가능하게 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중국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커머스 업계는 트럼프 2기의 중국에 대한 관세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관세가 막힐 경우 중국이 한국에 더 집중하며 국내 내수시장을 잠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알테쉬’ 입장에선 한국의 e커머스 시장이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데다, 자국과 가까운 물류비용의 부담도 적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자국 우선을 최우선시 하고 있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국 e커머스 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미국의 관세 규제로 중국의 관세가 막혀버릴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한국에 더욱 힘을 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e커머스 업계도 치열한 경쟁이 진행중인 가운데 이같은 이슈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쿠팡과 같은 거대 플랫폼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미국의 이 같은 방침이 쿠팡 같은 거대 e커머스 기업

의 성장에 부스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C커머스뿐만 아니라 쿠팡에도 대한 집중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여전히 빠른 서비스를 이행하고 있는 쿠팡의 충성고객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실제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종합몰 앱 순위 1~5위는 쿠팡 3200만명, 알리익스프레스(알리) 900만명, 11번가 740만명, 테무 680만명, G마켓 530만명 등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미국의 이 같은 규제 변화가 e커머스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판매자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에서 중국을 혐오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니 (중국 e커머스 기업들이) 한국에 집중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여기에 대형업체 규제가 완화되며 빅테크 기업들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돼 소비자들의 지갑을 털어버리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보다 위축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라면·치킨 수출 ‘브레이크’?... 원·부자재 비용 부담도 ↑

식품업계, 향후 정책 ‘예의주시’ 10%~20% 수준 보편관세 공약 韓 수출액 최소 200억 달러 감소 원화 약세 현상에 수익성 떨어져

제 47대 미국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사실상 당선됨에 따라 국내 식품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관세 인상과 강달러 기조가 미국 공약에 힘주고 있는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과정에서 자신이 재집권할 경우 중국에는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국



불닭볶음면. /상양식품

가에는 10~20% 수준의 보편관세를 매기겠다는 공약을 수차례 밝혔다. 자국의 무역 보호를 위해 관세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는 444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28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5.1% 증가한 수치다.

현재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한-미FTA로 인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변형원칙 등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관세가 없다.

하지만 관세 공약이 적용될 경우 한국의 수출액은 최소 2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올해 미국으로 수출한 농·식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라면이다. 올해 누적 라면 수출액은 지난달까

지 10억2000만달러(약1조4200억원)로 집계됐다. 현지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농심을 제외하고 삼양식품과 오뚜기 등 라면 업체들은 수출 중심의 사업을 펼치고 있어 향후 관세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달러’ 여파도 클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식품 업체들 모두 대부분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아 환율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밀가루 등 수입 비중이 높은 원·부자재 비용이 증가하고 미국에 공장과 법인이 있는 기업의 경우 현지 공장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도 커지게 된다. 원화 약세 현상이 지속돼 환율이 오르

면 결국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CJ제일제당을 비롯해 대상·농심·풀무원 등 미국에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도 트럼프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성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미국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BBQ·bhc·교촌치킨 등 K치킨 업체들도 미국 정부의 향후 정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K-치킨 업체들이 미국에 현지 매장을 낼 경우 소방국 등 정부기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트럼프 체제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허가가 다소 까다로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상황이 안좋게 되더라도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유럽과 동남아 등으로도 진출해있기 때문에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수출 효자품목’ K뷰티... “美 정책 맞추는 게 아닌 자생력 높이도록 노력할 것”

美서 노정은 ‘화장품업계’

지난달, 화장품 10.3억 弗 규모 수출
‘메이드 인 코리아’서 경쟁력 기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미국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K뷰티에도 영향을 미칠지 국내 뷰티 업계가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 중심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전개되면 K뷰티의 미국 진출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보편적 기본관세’ 도입을 강조해 왔다.

7일 뷰티 업계에 따르면 K뷰티가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리매김하며 화장품은 5대 유망 소비재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 10월 처음으로 월 수출액 10억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10월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화장품 수출 규모는 10억37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 전달과 비교해도, 지난 9월 9억2600만달러를 기록한 데 이어 최대 월 수출액을 경신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수출은 올해 연간 100억달러 달성도 눈앞에 두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화장품 누적 수출액은 84억5000만달러다.

화장품 수출이 호실적을 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장은 주요 수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주요 수출 국가로는 중국이 20억2000만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미국과

일본이 각각 14억3000만달러(약 2조 원), 7억4000만달러(약 1조 원)로 그 뒤를 이었다.

국내 대표 뷰티 기업들도 올해 3분기 미국에서 고성장을 하며 브랜드 입지를 높였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3분기 매출은 9772억원, 영업이익은 652억원이다.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사업에서 전년 대비 1.6% 하락한 534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해외 사업에서는 35.8% 늘어난 431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아모레퍼시픽이 해외 사업에서 가장 큰 매출을 거둔 곳은 미주 지역이다. 지난 2023년 3분기 707억원에서 올해 3분기 1466억원으로 무려 108% 증가하는 매출 성과를 거뒀다.

차세대 K뷰티 주자인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도 올해 3분기에 분기

매출로는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에이피알의 연결기준 매출액은 1741억원, 영업이익은 272억원이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2.8%, 24.6% 증가한 규모다.

에이피알도 해외 실적이 돋보인다. 에이피알의 3분기 해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8.6% 성장한 1003억원으로, 에이피알은 창립 후 최초로 해외 사업에서 분기 매출 1000억원 시대를 맞았다. 미국 시장에서 올린 매출은 39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2% 늘었다.

한 뷰티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가 뷰티 제품 수출에도 영향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미국 시장에서 한국 뷰티 브랜드 기업이 내놓는 제품들의 판매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정책 강화가 이어지더라도

국내 뷰티 관련 기업들은 수출에 소극적이기보다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대비용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미국 내 생산기지 설립 또는 확보를 통한 현지 생산이나 K뷰티 인기를 바탕으로 한 프리미엄 마케팅 전략 강화 등 대응책을 마련해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뷰티 브랜드 기업뿐 아니라 화장품 제조 산업 쪽에서도 “K뷰티의 인기와 경쟁력은 ‘메이드인코리아’에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전반적인 무역 환경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화장품에도 아주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메이드인코리아가 메이드인U.S.A가 된다면 과연 글로벌 소비자들이 K뷰티라고 인식할지는 심도 있게 검토해 미국 정책 기조에 맞추는 게 아니라 K뷰티 자생력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에몬스



2024 한국품질만족지수 13년 연속 1위, 에몬스

약 7만 7천여명의 제품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와 전문가 조사
2024 한국품질만족지수 '가정용가구 부문 13년 연속 1위' 기업 선정

Emons



Launching
• NEW TVCF SPECIAL SALE •

10.25 - 12.31



돌아온 'MAGA' 트럼프... 국익 기반 실용외교 대비 필요

尹정부, 외교안보 대응은

비개입주의 강화, 동맹변화 예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논란 재점화
북핵 정책, 핵동결 카드 주목
한미일 삼각공조 변화 불가피

'Make America Great Again.' 줄이면 MAGA로,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슬로건이다. 그만큼 'MAGA'에 진심인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국익을 우선하며, 이는 외교·안보 정책이 일방주의와 비개입주의(혹은 고립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의미기도 하다. 이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가치 외교'에 주력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대응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이나 외교가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방주의와 비개입주의에 대비해 국익 기반 실용외교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대북 정책의 변화나, 한미일 삼각공조나 중국과의 관계에도 변화도 있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AP/뉴시스

그간 한미 양국은 공조를 통해 미 전략자산 전개 등 북핵 억제력을 강화시키는 데 노력해왔다. 그렇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한반도 비핵화'와는 결이 다른 정책을 펼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가 미국 본토를 공격하지 않는 정도라면 관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기에 더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등 '핵 동결'을 대가

로 제재 완화 카드를 내밀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럴 경우 북한은 더욱 더 '통미봉남'을 택할 수 있다.

또 국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관할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영토에 대한 공격이 발생할 때, 미국이 한국을 지킬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이다. 만일 이 부분에서 미국과 한국

의 생각이 다르다면, '자체 핵무장'을 언급하는 주장이 힘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대통령실은 대북 정책에 대한 변화를 예상하면서도, 정확한 전망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으로 대북 정책의 방정식도 복잡해진 상태다. 실제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전화 통화에서 양측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 중인 북한 군 사동향에 대해 상황을 평가하고, 긴박한 전환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신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는 없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별개로, 방위비분담금도 한미 갈등의 요소 가운데 하나다. 최근 방위비분담금 협정(SMA)이 끝났고, 협정 유효기간은 5년이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에 방위비분담금을 100억 달러(약 14조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 재임 당시에도 이를 여러 차례 올리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당선인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예측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

는 지난 6일 "한미간 SMA는 이미 완료한 상태고, 국회 비준을 위해 국무회의 절차를 마쳤다. 이는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양국간의 합의를 만들어 놓는 것"이라며 "그것이 미국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충분히 협의한 결과로서 기준점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협정이 비준을 받은 상황이면, 향후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를 하더라도 변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미일 협력과 중국과의 관계도 역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이 경우 한미일 삼각공조를 통해 중국을 견제했던 기존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며, 한국 정부에게 미국과 중국 등 한쪽을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 "많은 분들이 '윤 대통령과 트럼프가 케미가 맞을 것'이라고 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관세·방위비 분담금 협정 더 빨리 비준해야”

전문가가 분석한 트럼프2기

서정건·유명희 교수

“관세, 협상 레버리지로 사용할 것”

미국 정치·통상 전문가들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할 관세, 분담금, 무역적자를 언급하며 한국이 민관 차원에서 정보 공유를 통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유명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국 대선 합의와 과제 세미나'에서 강연을 통해 미 대선이 주는 의미와 우리의 대응방안 등을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연구단체 '국가혁신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왼쪽)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원연구단체 '국가혁신전략포럼'에서 주최한 '미국 대선과 합의와 과제 세미나'에서 강연하는 모습. /박태홍 기자

전략포럼'에서 주최했고 윤상현·안철수·김기웅·최순진 국민의힘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참석했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를 협상의 레버리지로 사용

할 것이라며 국회도 비준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 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는 관세와 분담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관세는 자기 맘대로 올릴 수 있고 내릴 수도 있다"며 "관세를 올려서 중국과 경쟁에서 이기고 바꾸는 척 관

세를 내리는 걸 하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에 주한미군 방위비를 8.3% 올리고 국회가 계속 요구했던 방위비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라는 데 성공했다. 국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같은 내용의 방위비 분담 협정을 더 빨리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가 만약 방위비 분담을 더 늘려달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의 회에서 이미 비준했다고 주장하거나, 캠프 험프리스 같은 세계 최대 미군 기지를 지어줬는데 미국이 더 보상을 내라고 하든지 미국 무기 구매를 중단하겠다고 하든지 트럼프 주변인들이 트럼프를 압박하고 회유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 중후반 2년간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던 유명희 교수는 미국이 급증한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유 교수는 트럼프가 관세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관세가 ▲통상정책 수단 ▲협상의 레버리지 ▲제조업 부흥책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유 교수는 "우리가 동맹이라고 해서, FTA를 맺었다고 해서 일방적 관세 정책에 해당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안이한 것이다. 철저한 협상의 시간이 왔다"고 부연했다.

유 교수는 정부 차원의 대응에 대해 "우리가 미국의 최우선 순위는 아니지만, 무역수지 적자국은 분명하고 적자 폭은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며 "협상의 핵심은 항상 자동차였다. 자동차 대미 수출이 늘었고 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가 늘었다. 이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통상현안에 대한 사전관리와 대응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부동산 개발업자서 美 대통령으로 두 번의 탄핵 소추에도 백악관 탈환

도널드 트럼프가 걸어온 길

美 우선주의 앞세워 대통령 당선 권력남용·폭동선동 등 논란 가득
인종차별 발언·인신공격 일삼아

미국 47대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백악관으로 재입성했다.

그는 부동산 개발업자에서 미국 대통령으로, 그리고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걸어왔다. 그의 인생은 끊임없는 논란과 성공으로 가득 차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1946년 6월 14일 뉴욕 퀸즈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는 성공한 부동산 개발업자

였으며 주부이자 자선사업가였던 메리 애니의 3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트럼프는 어린 시절부터 부동산 사업에 관심을 가졌다. 뉴욕 군사 아카데미를 졸업한 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에서 경제학 학위를 받았다.

트럼프는 1971년 아버지의 회사를 인수하여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으로 이름을 바꾸고, 호텔, 카지노, 골프장 등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파산의 위기도 겪는다. 2004년 트럼프 호텔 카지노, 2009년 트럼프 엔터테인먼트 리조트가 파산하기도 했다.

1946년	6월14일 뉴욕 퀸즈 출생
1964년	뉴욕군사학교 졸업
1968년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경제학 학사
1983년	뉴욕 랜드마크 트럼프 타워 완공
2004년	리얼리티 '어프렌티스' 쇼 출연 대중적 인기
2005년	모델 출신 멜라니아와 세 번째 결혼
2016년	공화당 후보 출마, 45대 미국 대통령 당선
2017년	대통령·취임, 美 우선주의 정책 추진
2020년	대통령 재선 실패
2024년	공화당 후보지명, 7월 유세중 충격
2024년	11월06일 47대 미국 대통령 당선

그는 방송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에도 참여했다. 1996년 미스 유니버스 조직회를 인수해 매년 미스 USA와 미스 유

니버스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는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04년 NBC 리얼리티 쇼 '어프렌티스'를 진행하며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어프렌티스는 도널드 트럼프의 회사 중 하나의 경영권을 놓고 경쟁하는 리얼리티쇼 프로그램이다.

정치 경력이 전혀 없던 트럼프는 2016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공약을 내세워 공화당 후보로 출마하여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의 첫 임기 동안,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그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시행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재협상했다. 또한, 그는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멕시코 국경

에 장벽을 세워 불법이민을 막았다.

그러나 트럼프의 임기는 논란으로 가득했다. 그는 미 역사상 두 번 탄핵 소추된 유일한 대통령으로 기록을 남겼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로, 두 번째는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을 선동한 혐의로 진행되었다. 두 번 모두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24년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는 여러 차례 막말 논란에 휘말렸다. 그는 경쟁자인 카말라 해리스와 니키 헤일리를 향해 인종차별적 발언과 인신공격을 일삼았다. 특히, 해리스의 이름을 잘못 발음하거나 그녀의 지능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하여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최준호 기자 ch9720@

사라지는 대출상품... 은행권 “내년까지 취급관리 이어질 것”

금융당국, 가계대출 총량 관리 지속 은행, 비대면 상품 등 신규판매 중단 “연말 대출 문턱 더욱 올라갈 수도”

은행권이 비대면 신규 대출 취급 중단과 대출모집인 채널 종단을 선언하면서 ‘대출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선 금융당국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은행권 대출한파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732조812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1141억원 증가했다.

월별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 8월 9조6259억원으로 고점을 찍은 이후 9월 5조6029억원, 지난달 1조원대로 낮아지면서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은행권의 가계대출 조여기는 더 심해지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솔(SOL)뱅크 비대면 대출상품의 한시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대상은 비대면 가계대출 상품 전제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이 모두 포함된다. 대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732조812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1141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30일 시민이 서울 시내에 한 빌딩 앞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를 지나고 있다. /뉴시스

제한 해제 시점은 현재로서는 미정이다. 우리은행도 지난 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중도금 대출을 제외하고 갈아타기 상품 등 비대면 주택금융 상품 판매가 전면 중단된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한 신용대출 상품 판매도 일부 중단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비대면 대출 3개 상품(i-ONE 직장인스마트론·i-ONE 주택담보대출·i-ONE 전세대출)의 신규 판매를 중단한 상태.

또한 은행권은 비대면 대출과 더불어

‘대출모집인’ 채널까지 중단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오는 8일부터 지역 농협 부동산 중개업소를 포함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시행 기간은 별도 통지 전까지다.

앞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 9월부터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대출모집인’ 취급 대출을 전면 중단했고, 하나은행 역시 지난달 23일부터 대출모집인별 신규 취급 한도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대출모집인이란 은행과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와

전달 등 은행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모집 법인과 대출 상담사다.

은행 입장에선 대출모집인이 가계 대출을 늘리는 요인 중 하나로 판단해 취급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실제 대출모집인이 유치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액은 올해 1~8월 월평균 9조7816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대출모집인이 끌어온 신규 주담대가 사상 처음 10조원을 돌파했고 주담대가 급증한 지난 7월과 8월은 각각 11조923억원, 11조4942억원을 기록했다.

은행권은 당초 대출금리를 올려 가계대출을 관리하려고 했으나 금융당국이 예대마진 증가를 지적하자 대출 취급 중단으로 관리 방안을 선회했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연말을 넘어 내년까지 은행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말 총량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대출 문턱을 더욱 올릴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당국의 기조가 일괄되게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출 한파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지난 4일(현지시간) ‘2024 아시아보험산업대상’에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이상호 전략사업실장(왼쪽)이 ‘올해의 디지털 보험사’ 수상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올해의 디지털 보험사 수상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올해의 디지털 보험사로 선정됐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4일(현지시각)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열린 ‘2024 아시아보험산업대상(Asia Insurance Industry Awards 2024)’에서 ‘올해의 디지털 보험사(Digital Insurer of the Year)’를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는 “이번 수상은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이 걸은 혁신에 대한 평가”라면서 “국내 디지털 보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삼성화재 ‘35기 고객패널’ 발표회

삼성화재는 다양한 고객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35기 고객패널’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패널이 직접 주제를 선정했다. 체험 활동을 수행한 뒤 세대별 맞춤 서비스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내는데 집중했다.

20대 대학생 공모전을 통해서 영(Young) 패널을 처음 도입했다. 30~40대 고객으로 구성된 일반패널과 10년 이상 활동한 고경력 패널로 이루어진 심층패널 3가지로 구성해 세대별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현대해상 ‘사랑나눔행사’ 개최

현대해상은 지난 6일 서울 광화문 본사 앞에서 ‘2024 사랑나눔행사’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사랑나눔행사는 현대해상이 지난 2004년부터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자원의 선순환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해 온 사회공헌활동이다. 임직원과 하이플레너가 기부한 물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 전액을 소외계층 아동 급식비 지원 사업에 기부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전국 각지에 있는 임직원과 하이플레너가 기부한 7000여 점의 물품이 모였다. 신입사원을 포함한 직원들은 일일 서포터즈로 나서고 캐리커처와 돌림판 등 물품 판매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를 운영했다. /김주형 기자

1400원대 고환율 지속 전망... ‘달러보험’ 이목집중

트럼프 당선에 달러가치 급상승 환차익 가능한 환테크 상품 부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고환율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 전망에 따라 안전자산인 달러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원·달러 환율 1400원이 기정사실화하면서 달러보험이 고수익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지난 4월 이후 7개월 만에 달러당 1400원을 웃돌기세에 있다.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달러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트럼프의 대규모 관세 부과와 확장 재정을 골자로 한 공약

은 경기 방어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으로 연결돼 채권 금리를 높이고 달러 강세를 유발한다고 분석했다.

달러가 장기간 강세를 이어갈 것이라 전망에 따라 달러보험이 안전자산으로 떠오르고 있다. 달러보험은 보험료 납입,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지급 등 모든 과정을 달러로 거래하는 상품이다. 연금보험과 종신보험 두가지 방식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만기 후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를 환율로 계산해 보험금을 받는 구조다.

특히 달러보험은 보험금 수령 시점에 달러 가치가 강세를 보이면 원화 기준으로 보험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어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환테크’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외국계 생명보험사들이 달러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AIA생명은 지난 7월 달러연금보험을 출시했다. 일시납 상품으로 가입 시점 금리로 10년간 확정이자 지급된다. 연금 강화형에 한해 계약일로부터 10년 후 일시납 보험료의 15%가 계약자적립액에 가산된다.

메트라이프생명도 지난 8월 달러연금보험 2종을 선보였다. ‘오늘의 달러연금보험’은 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을 20년간 확정된 금리로 제공한다. 보험 가입시점부터 1년간은 납입 보험료에 따라 최대 연 1.5%의 초년도 보너스 적립이율도 더해진다.

‘더 베스트 초이스(The Best Choic

e) 달러연금보험’은 벅카슈랑스 전용 달러연금보험 상품이다. 기존에 원화로만 판매되던 상품을 달러로도 구성했다. 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이 5년 및 10년간 확정된 금리로 제공된다.

달러보험이 고수익을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수익을 노린 가입은 부적합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달러연금보험은 가입, 납입, 거치 기간을 포함해 평균 20년은 봐야 하는 상품”이라며 “환차익을 노리고 가입하는 상품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달러 자산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허윤홍 GS건설 대표 ‘BBP 챌린지’ 동참

GS건설은 허윤홍 대표(사진)가 환경부가 주관하는 환경보호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BBP) 챌린지’에 동참한다고 7일 밝혔다.



허대표는 “ESG 선도기업으로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계속 펼쳐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대표는 다음 참여자로 네이버 최수연 대표와 호반그룹 김대현 기획총괄사장, 사단법인 트루 박준성 사무총장을 지목했다. /안상미 기자 smah1@

서울 아파트 매매가 33주 연속 상승

부동산원 “전주대비 상승폭 축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33주 연속 상승했다. 매매수급지수는 3주째 하락했다.

7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7% 오르면서 33주 연속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강북권에서 광진구(0.06%→0.08%)가 광장·구의동, 중구(0.10%→0.08%)는 신당·흥인동 소형 규모, 마포구(0.12%→0.09%)는 공덕·대흥동 신축, 용산구(0.13%→0.11%)

는 효창·이촌동, 성동구(0.16%→0.14%)는 행당·옥수동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서 서초구(0.14%→0.14%)는 서초·잠원동 재건축단지, 송파구(0.09%→0.06%)가 신천·가락동 대단지, 강남구(0.18%→0.18%)는 개포·대치동 구축, 영등포구(0.10%→0.07%)는 문래동3가·여의도동 역세권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디에이치아너힐즈’의 경우 이달 전용면적 84㎡가 33억원에 거래되면서, 4개월새

3000만원 올랐다. 반면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서울숲리버뷰자이’는 10월 전용면적 59㎡가 16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8월 매매가격(16억5000만원) 대비 2000만원 내렸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연속 하락했다. 11월 첫째 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4으로 전주(100.6)보다 0.2포인트 내렸다. 등락을 반복하다 10월 셋째 주부터 3주 연속 지수가 하락세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단지와 지역 내 선호단지 위주로 거래되는 등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다만 대출규제로 인한 매수자 관망세로 매물 적체되는 등 상승폭은 지난주 대비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자산 정리하고 '자금 확보' 속도 생산조정 통해 수익성 개선 노력

롯데케미칼, 불황 타개 본격화
기초화학 축소 포트폴리오 재편
비주력 사업 정리·경영전략 전환
중 경쟁대비 위한 자산 경량화 운영

롯데케미칼이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효율 자산을 정리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공격적인 증설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올해 상반기 246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 특히 실적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초화학 사업이 사업장 보수와 레깅호과(원재료 가격 투입 시차) 등으로 침체되면서 전사 실적을 끌어내렸다.

더욱이 중국의 공격적인 증설로 인해 공급압박이 심화돼 기초화학 매출 비중이 높은 롯데케미칼에 부담이 가중됐다. 중국은 오는 2030년까지 에틸렌 생산 능력을 1700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는 전 세계 생산량 중 44%에 해당한다. 반면 국내 에틸렌 생산 능력은 1280만톤에 불과하며 이 중 롯데케미칼의 에틸렌 생산량은 233만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롯데케미칼은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고 해외 자회사 지분을 팔아 자금 조달에 나서는 등 구조 재편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려운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롯데케미칼은 말레이시아 소재 합성 고무 생산회사인 LUSR을 청산하기로 했다. LUSR은 롯데케미칼과 UBE E



롯데케미칼 여수1공장 전경.

/롯데케미칼

lastomer Co. Ltd.가 50대 50 지분 비율로 지난 2012년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말레이시아에 합성고무를 생산하는 회사다. LUSR은 지난 2015년부터 상업 생산을 시작했으나 2021년을 제외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적자를 기록해 청산 목록에 포함됐다. 이에 비핵심 사업으로 판단돼 내린 결정이다.

이후 롯데케미칼 총괄대표는 "LUSR 청산은 재무건전성 회복과 사업포트폴리오 변화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경영전략 방향에 맞춰 변화하는 시장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케미칼 기초화학은 자산 경량화와 운영 효율 극대화를 통해 캐시카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30년까지 30%이하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자회사의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 재무 건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롯데케미칼은 에틸렌글리콜(EG) 생산 법인인 LCLA(롯데케미칼 루이

지애나 LLC)의 유상증자 지분 40%를 활용해 약 6600억원을 연내 조달해 차입금을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인도네시아 LCI(PT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의 지분을 활용해 내년 중 7000억원 규모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LCI는 에틸렌 100만톤 생산 규모의 석화 공장 건설을 위해 지난 2016년 설립된 회사로 내년 중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롯데케미칼 여수 2공장의 E G(에틸렌글리콜)과 EOA(산화에틸렌 유도체) 생산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MMA(메타크릴산) 생산은 내년 상반기까지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범용 석유화학 중심의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속도감 있게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추진하는 등 재무건전성 재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소비자 건강 지키는 소재 원산지 정보 제공

포스코, 브랜드웨어링 고객사 공개

포스코가 소비자들의 건강과 직결된 소재의 원산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포스코는 일반 소비자들이 한눈에 포스코 브랜드웨어링 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스코 제품 홈페이지(product.posco.com)에 공개했다고 7일 밝혔다.

포스코 브랜드웨어링은 100% 포스코 강재만을 사용해 제작한 고객사 제품에 대해 'Steel by POSCO'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포스코는 지난 2019년부터 수도권, 주방용품 등 소비자들의 건강과 위생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재의 원산지 정보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브랜드웨어링 제도를 기획해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는 현재 주방용품을 제조하는

보랍스텐, 씨엔티코리아, 한국클래드텍, 소화기를 제작하는 대동소방, 창성산업, 오일금속, 파이프를 제조하는 이에프코리아 등 총 15개 고객사와 협약을 체결해 유지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명시된 해당 15개 업체만 당사와 공식적으로 Brand Sharing 협약이 유효한 상태다.

포스코는 브랜드웨어링 제도를 확실히 통해 소재 출처와 제품 생산자가 분명한 'Made in Korea'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중소 고객사의 브랜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국내 제조산업 생태계를 보다 건강하게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산 수입재 등이 포스코 제품으로 둔갑되어 판매돼 포스코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사와 최종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폐기물 매립 제로' 최고 등급 획득

SK온, 폐기물 저감·재활용 증대

SK온이 폐기물 관리 체계를 강화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에 나선다. SK온은 서산 공장과 중국 연청 1공장이 글로벌 안전·환경 인증기관인 UL로부터 폐기물매립제로인 증(Zero Waste To Landfill, 이하 ZWTL)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ZWTL은 폐기물 자원순환 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UL은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소각·매립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비율에 따라 ▲플래티넘(99.5%~100%) ▲골드(95%~99.5%미만) ▲실버(90%~95%미만) 등 3개 등급으로 나눠 인증한다. 지난 1894년 설립된 UL은 미국 최초 안전 규격 개발 및 인증 회사로, 환경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SK온 사업장이 UL로부터 최상위 등급을 부여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에서는 SK온 서산 공장이 지난 2022년 골드 등급으로 평가를 받은 지 2년 만에 이룬 결과다. 중국 연청 1



SK온 서산공장 전경.

/SK온

공장은 SK온 글로벌 사업장 최초로 인증을 획득했다. 첫 평가에서부터 우수 폐기물 관리 체계를 인정받았다.

SK온은 SHE(Safety(안전)·Health(보건)·Environment(환경))경영 관리 체계에 따라 매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재활용률을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구체적으로 SK온은 폐기물 종류별로 재활용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작업을 병행하는 등의 다양한 재활용률 개선 활동을 수행했다.

/차현정 기자

에너지 절감 상업용 가전으로 B2B 확대

LG전자, AI 최적화 '프로페셔널' 업계 최초 히트펌프 건조 방식 도입
옷감 손상 줄이고 건조 효율 극대화

LG전자가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상업용 생활가전으로 글로벌 기업간 거래(B2B) 시장을 선점한다.

LG전자는 6일(현지 시각)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나흘간 열리는 국제 세탁 박람회 '텍스케어 2024(Texcare International 2024)'에 참가했다고 7일 밝혔다.

LG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상업용 대용량 세탁·건조 신제품 라인업인 'LG 프로페셔널(Professional)'을 공개했다. LG 프로페셔널은 30·25·20kg 세탁기와 30·25kg 건조기, 1대의 제품으로 세탁과 건조를 끝내는 일체형 콤보(세탁 25kg·건조 16kg) 등을 모두 포함한다.

상업용 세탁기는 세탁 전문점이나 호텔, 레스토랑과 같은 대규모 시설에서 주로 사용한다. LG전자 자체 추정치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 규모는 35억달러(4조8500억원)로 추산된다.



LG전자가 국제 세탁 박람회 '텍스케어 2024(Texcare International 2024)'에서 상업용 대용량 세탁·건조 신제품 라인업인 'LG 프로페셔널(Professional)'을 공개했다. 사진은 업계 최초로 상업용 콤보 제품에 적용한 인버터 히트펌프 등을 분해해 보여주면서 LG전자의 차별화된 핵심부품 기술을 전시한 모습. /LG전자

LG전자는 글로벌 생활가전 선도 브랜드로 가정용 시장에서 축적해 온 차별화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업용 B2B시장에서도 입지를 굳힌다는 구상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LG전자는 2008년 미국에서 소용량 제품을 출시하며 글로벌 상업용 세탁·건조 시장으로 본격 진출했다. 이후 2016년 텍스케어, 2022년 클린쇼 등 주요 전시회에 참가해 업계 인지도를 높이고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이번에 나온 LG 프로페셔널 제품군에는 최적의 세탁과 건조를 위한 AI 기술이 적용됐다.

AI가 세탁물의 무게를 감지해 물과 세제의 사용량을 조절하고, 최적으로 탈수해 세탁 시간을 단축한다. LG전자는 이번에 상업용 콤보 제품에 업계 최초로 히트펌프 방식 건조를 적용했다. 히트펌프는 히터 방식의 건조 대비 전기 사용량이 적고 옷감 손상을 줄이면서 건조 성능을 높일 수 있다.

류재철 LG전자 H&A사업본부 본부장은 "B2B는 LG전자 생활가전 사업의 중요한 축"이라며 "B2B에 최적화된 강력한 성능과 에너지 절약을 모두 갖춘 혁신적 솔루션으로 상업용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고 말했다.

대담·풍요·발전 키워드로 헤리티지 전시

기아, 내년 11월까지 'Kia360' 진행

기아가 지난 80년간 대한민국의 성장과 함께 이어온 고유의 '헤리티지'를 돌아보고, 고객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여정에 나선다.

기아는 7일부터 내년 11월까지 브랜드 체험 공간 Kia360(서울 압구정 소재)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기아의 움직임을 담아낸 두번째 헤리티지 전시 '프롬 모먼트 투 무브먼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브랜드 체험 공간 Kia360에서 열리며 기아의 역대 기업 이미지(CI), 엠블럼, 차량, 광고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지난해 8월 시작해 올해 5월 끝난 '무브먼트

위드 피플' 이후 기아가 두 번째로 여는 헤리티지 전시다.

이번 전시에서 기아는 주요 키워드로 '대담한(Bold)', '풍요롭게 하는(Enriching)', '발전적인(Progressive)' 세 가지를 꼽고 이를 잘 드러내는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일대일로 배치했다.

'대담한' 공간에선 세계 최초 도심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타이틀을 내걸었던 스포티지 1세대와 최근 세계적인 호평을 받는 대형 전기 SUV EV9이 전시됐다.

'풍요롭게 하는' 공간에선 마이카 시대를 열었던 프라이드와 전기차 대중화를 이끄는 EV3를 선보였고 '발전적인' 공간에는 봉고9와 목적기반모빌리티(PBV)를 놓았다. /양성운 기자 ysw@

Gallery **오름**



우리들의 이야기-30호 (90.9x72.7cm) | mixed media

우
리
들
의
이
야
기

An Invitational Exhibition by Cho Kyu Chang

조규창 초대전

2024.11.6(수) ▶ 11.17(일) 갤러리아람

관람시간 11:00-19:00 *매주 일 · 월요일 정기휴관

주최 Gallery **오름** 후원 **오름비** ARAMBI 동성제약 신안개발

갤러리아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5 신안빌딩 1층 T. 02.6743.3370

황현식 “AI에 2~3兆 투자… 통신역할 확장”

〈LGU+ CEO〉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

“고객에 실질적 가치 제공 중요” 추구하는 ‘AX 컴퍼니’ 비전 제시 보이는 전화, 보이스피싱 감지 기능 ‘1년 내 사용자 100만명’ 목표 구글과 기획단계부터 협력 중

LG유플러스가 고객 경험을 혁신할 새로운 인공지능(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ixi-O)’를 출시하며 ‘AI 전환(AI) 컴퍼니’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7일 서울 용산 사옥에서 열린 LG유플러스 기자간담회에서 황현식 LG유플러스 CEO는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AX 서비스 전략을 공개하며 고객 중심의 기술 혁신을 강조했다.

◆ 최적화된 AI 솔루션 제공

황 CEO는 “AI 기술 자체보다 고객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LG유플러스가 추구하는 ‘AX컴퍼니’ 비전을 제시했다.

LG유플러스는 B2B와 B2C 두 가지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AX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B2B 부문에서는 ‘올인AI(All in AI)’ 전략을 통해 기업 고객에게 최적화된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B2C 부문에서는 익시오를 중심으로 고



LG유플러스의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가 제공하는 온디바이스 기반 기능.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7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AX 추진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객 맞춤형 기능을 지원하는 ‘퍼스널 AI 에이전트(Personal AI Agent)’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LG유플러스는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하며

AI 분야에 2~3조원을 투자해 통신의 역할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 세계 최초 온디바이스 AI ‘익시오’

이날 LG유플러스는 AI 통화 에이전트 서비스 ‘익시오’의 공식 출시도 알렸다. 익시오는 LG유플러스가 자체 개발한 AI 통화 서비스로, ▲전화 대신 받기 ▲보이는 전화 ▲실시간 보이스피싱 감지 ▲통화 녹음 및 요약 기능을 세계 최초로 온디바이스 환경에서 제공한다.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 내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처리돼 보안성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AI가 전화를 대신 받아 대화를 이어가거나,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환해 화면에 보여주는 ‘보이는 전화’ 기능 등은 현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은 AI가 통화 내용을 문장 단위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있을 경우, 통화를 종료하도록 경고한다.

이상엽 CTO는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력해 확보한 신고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켰다”면서 “현재 98~99%의 탐지 정확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후 업그레이드 버전에서는 답페이지 기술로 제작된 가짜 음성까지 탐지하도록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익시오의 단기 목표로 ‘1년 내 사용자 100만 명 확보’를 설정했다. 현재는 아이폰 14 이상 버전에서만 익시오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내년 삼성전자 갤럭시 신제품 출시 시점에 맞춰 안드로이드 버전도 선보이고 적용 대상 단말기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LG유플러스는 LG전자와 협업해 홈 AI 에이전트까지 익시오의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홈 에이전트는 구글과 기획 단계부터 협력 중이다.

황 CEO는 “통신의 역할이 사람과 정보를 연결하는 것을 넘어, AI로 일상에서 새로운 연결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확장할 것”이라며 “익시오와 같은 차별화된 AI서비스가 고객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모든 일상이 하나로 연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SKB

‘B tv 케이블’ 고객에 고품질 사용경험 제공

SK브로드밴드는 ‘Btv 케이블’ 고객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 사용자 환경(UI)·사용자 경험(UX) 전면 개편과 함께 영상 품질을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B tv 케이블’ 고객도 ‘B tv’의 고품질 사용자 경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B tv 케이블’과 ‘B tv’ 서비스 간 UI/UX 요소를 통일함으로써 고객에게 일관된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

‘B tv 케이블’의 서비스 화면을 텍스트와 메뉴 위주에서 이미지와 영상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고객이 직관적으로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UI·UX 환경을 서비스한다.

주문형 비디오(VOD) 콘텐츠를 블록 형태로 노출시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메뉴 탐색 구조도 고도화한다. 즐겨리나 타이틀, 상세 보기 버튼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추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중기부

중소 유공자 발굴 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을 8일부터 오는 12월13일까지 받는다.

중소기업 유공자 정부포상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열리는 ‘2025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중소기업인 대회는 1990년 제2회 중소기업 주간 행사의 개막행사로 최초 개최된 이래 중소기업계 최대 규모의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매년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포상을 시행해 왔다.

포상 분야는 ▲모범중소기업인 ▲모범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 4개 부문이다. 심사를 통해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중기부장관 표창 등 380여 점 내외로 수여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카카오, 3분기 영업이익 1305억

(전년비 5% ↑)

매출액, 4% 감소한 1조9214억 콘텐츠 매출 14% ↓… ‘비핵심 사업 정리’ 내년 신규 AI 서비스 ‘카나나’ 접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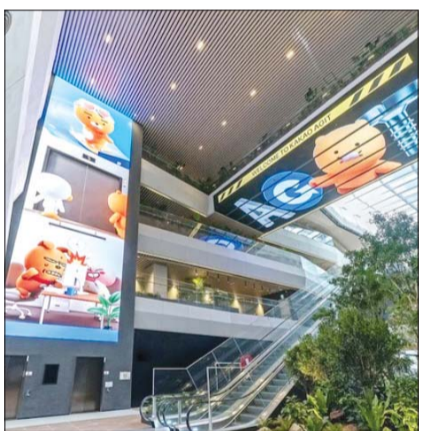
카카오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9214억원, 영업이익은 1305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액은 4%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5% 증가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플랫폼 부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 늘어난 94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특비즈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5073억원을 기록했다.

특비즈 중 비즈보드, 비즈니스 메시지 등 광고형 매출액은 292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늘었다. 특채널을 핵심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도입하는 광고주가 늘어나면서 비즈니스 메시지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카카오 측은 설명했다.

선물하기와 톡스토어 등 거래형 매출액은 8% 늘어난 2151억원이다. 커머스 3분기 통합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 측은 “추석 연휴에 선물 라인업을 다각화하고 럭스탭 중심으로 이용자들에게 차별화된 선물 경험을 제공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모빌리티·페이 등을 포함한 플랫폼 기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3598억원이다. 다음 등 포털비즈 매출액은 764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 판교 사옥 아지트 전경. /카카오

반면 카카오 사업의 또 다른 축인 콘텐츠 부문의 3분기 매출액은 977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 감소했다. 콘텐츠 부문 내 뮤직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8% 감소한 4709억원을, 스토리 매출액은 218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 줄었다.

카카오는 “최근 콘텐츠 부문에서 비핵심 사업을 지속 정리 중이며 이를 통해 핵심 시장에서 성장을 가속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톡 3분기 평균 월 이용자 수(MAU)는 전년 동기 대비 60만 명, 전분기 대비 2000명 증가한 4893만 3000명이다. 국내 기준으로 글로벌 합산하면 5419만8000명이다.

카카오는 내년에 신규 AI 서비스인 ‘카나나’ 뿐만 아니라 AI를 접목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나 기능들을 본격적으로 선보여 이용자와 파트너에게 혁신적인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혜민 기자

포스코그룹, 실리콘 음극재 생산체제 구축

연산 550톤 규모 공장 준공식

포스코그룹이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실리콘 음극재의 완전한 생산 체제를 구축했다.

포스코그룹 이차전지소재 사업회사인 포스코실리콘솔루션이 7일 포항 일만 산업단지에서 연산 550톤 규모 실리콘음극재 공장 상·하공정 종합 준공식을 열었다.

포스코실리콘솔루션은 올해 4월 포스코 고유기술을 적용해 실리콘 합성물을 코팅하는 하공정 공장을 준공한 이래 7개월만에 산화물계 실리콘을 합성하는 상공정까지 준공했다. 포스코실리콘솔루션의 상·하공정 종합준공으로 실리콘 합성물의 직접 생산부터 코

팅까지 전 공정을 보유함에 따라 초기 충·방전 효율 향상 등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배터리용 소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됐다.

김준형 포스코홀딩스 이차전지소재 총괄은 “실리콘음극재는 포스코그룹이 개발중인 차세대 소재의 한 축이다. 포스코실리콘솔루션은 오늘 준공된 공장 과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리콘음극재는 현재 리튬이온전지에 주로 적용되는 흑연음극재보다 에너지밀도를 4배 가량 높일 수 있어 전기차 주행거리 향상 및 충전시간 단축이 가능한 차세대 음극재다. 연산 550톤은 전기차 27만 50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양성운 기자 ysw@

‘SK하이닉스 기술 유출’ 中 직원, 징역 선고

징역 1년 6개월, 벌금 2000만원 부과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며 반도체 불량률을 낮추는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전 중국인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대호)는 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전 직원 A(36·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서현 기자 seoh@

A씨의 기술 유출은 SK하이닉스가 보안상 USB 등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출력물의 내용, 인쇄자, 사용처 등을 상세하게 기록, 관리하면서 발각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퇴사 전 핵심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과 관련된 A4용지 4000여 장 분량의 자료를 출력했는데, SK하이닉스 측이 대량 인쇄에 대한 이유와 기록을 물었을 때 소명하지 못하면서 꼬리를 뱌다.

/김서현 기자 seoh@

중진공-정부조달수출진흥협

중소 해외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사)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와 중소기업 해외추가 진출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중진공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교육장에서 협회와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해외입찰정보, 조달 바이어 네트워크 등 상호 정보교류 및 공동 제공 ▲추진사업 간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현지 진출 애로 발굴과 해소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조선·정통에너지·방산 ‘미소’... ETF 옥석 가리기 본격화

美 대선 도널드트럼프 당선 이후 ETF 수익률 톱5 대부분이 ‘조선’ ‘트럼프, 저렴한 에너지 사용 강조 화석연료 정책, 국내 조선에 긍정적’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그의 공약과 관련된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2기가 주목한 정통에너지·전력·조선업종 관련 상품이 주목 받는 분위기다.

7일 ETF 체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소식 이후 시장에서 수익률 ‘톱5’ 상위권에 오른 상품 대부분이 ‘조선’ 관련 ETF였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조선TOP10은 이날 11.53%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레버리지를 포함한 국내 ETF 상품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뒤이어 신한자산운용의 SOL조선TPO3플러스, HANARO Fn조선해운, KODEX K-친환경조선



ChatGPT에서 생성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으로 조선·원유·방산 관련 ETF가 각광 받는 모습.

해운액티브 순으로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다.

트럼프의 주요 공약에는 해상 풍력 에너지 개발 중단, 파리 기후 협정 재탈퇴 등과 전통에너지 관련 사업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부분이 ETF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인다. 삼정KPMG 측은 트럼프 후보의 당선 직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저렴한 에너지 사용을 강조했다”며 “국내 조선업계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수요 증

가에 따라 에너지 운반선 건조에 강점을 지닌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화석 연료 중심 정책이 긍정적 경영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 후의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 중 조선주 다음으로 주목받는 분야는 원유 관련 섹터다.

선거 유세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경제성장 정책인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 기조를 ‘녹색 속임수(Green New Hoax)’라고 말할 정도로 강하게 비판하며, 화석연료 생산 확대와 자동차 연비 규제 완화 같은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원유 관련 ETF로는 KB자산운용의 RISE 미국 S&P 원유생산기업(합성H) 상품이 있으며, 7일 수익률 6.47%를 기록했다. 일주일 기준으로는 20위권에 들지 못했던 상품이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 톱5에 오르며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더군다나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중에는 ‘전략석유 비축량을 확충한다’

는 공약까지 포함돼 있어 향후 원유 관련 ETF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다.

이 밖에도 방위산업 관련 ETF가 트럼프 당선으로 더욱 상승세를 탈 전망이다. 이미 방위산업 부분은 연초 대비 크게 상승했지만 트럼프의 당선도 더욱 큰 호재로 작용하는 섹터로 꼽힌다. 트럼프가 첫 집권을 했을 당시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임기 4년 동안 평균 주가가 40% 이상 뛴 분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 우주주’를 주장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NATO 회원국에 대해 방위비를 기존 국내총생산(GDP)의 2%를 3%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기에 방산 ETF도 이에 따라 수익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7일 ETF 체크 순위 기준으로도 수익률 상위 20권 안에 방산 관련 ETF만 4개가 이름을 올렸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신(新) 정부 트레이딩이 본격화 될 것”이라며 수혜 분야는 방산·조선 업종”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미래에셋증권, 3분기 호조 ‘1조 클럽’ 눈앞

영업익 3708억 전년대비 114% 증가 매출 5조4488억, 누적영업익 9145억

미래에셋증권이 3분기 영업이익 3708억원을 달성하며 연내 ‘영업이익 1조클럽’에 다시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7일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14.2% 증가했다고 7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조4488억5600만원으로 19.2% 늘어났다. 당기순이익은 2900억9700만원으로 277.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누적 영업이익은 9145억원, 세전이익 8658억원, 순이익 6618억원을 기록했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미국 연준의 4년6개월 만에 정책금리 0.5%p 인하라는 빅컷과 미국 대통령 선출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는 변수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내외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국내외 전 사업부문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해외법인에서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뒀다.



미래에셋증권 본사 전경. /미래에셋증권

해외법인은 3분기 508억원의 세전이익을 기록하며, 올 한 해만 1108억원의 누적 세전이익을 달성했다.

인도, 베트남 등 이머징 시장에서는 현지화와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안정적인 성과를 시현했다. 홍콩, 뉴욕, 런던 등 선진국에서는 세일즈앤트레이딩(S&T) 비즈니스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로 자기자본이익률(ROE) 포함 전반적인 수익성 제고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미래에셋증권 인도법인의 경우 올해 8월 기준 온라인 증권사 중 9위, 전체 증권사 중 15위로 급성장하며 지난 10월

리테일 계좌수 200만개를 넘어섰다. 현지 증권사 웨어칸 인수가 연말에 완료되면 리테일 계좌수 약 500만개를 보유한 종합증권사로서 5년 내 인도 5위권으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레이딩(Trading) 부문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양호한 채권 실적을 바탕으로 전 분기 대비 19% 증가한 3407억원의 세전이익을 기록했다. 기업금융(IB) 부문은 기업공개(IPO) 주관 점유율 17% 이상을 차지했다.

연금, 해외주식 잔고의 성장세도 두드러졌다. 연금자산은 40조 원을 넘어섰고 해외주식 잔고는 31조 원을 돌파했다. 특히 확정기여형(DC) 원리금비보장 상품 수익률 3.8%,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익률은 13.7%로 집계됐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국내 다각화된 사업부문에서 창출되는 경상수익과 넥스트 스텝으로 도약을 앞둔 글로벌 비즈니스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를 기반으로, 기업가치 제고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TIGER 美S&P500 ETF’ 순자산 5조 돌파

미래에셋증권, 국내 최대규모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S&P500 ETF’ 순자산이 5조원을 돌파하며 연초 이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일 종가 기준 ‘TIGER 미국S&P500 ETF’ 순자산은 5조2215억원이다. 국내 상장된 해외주식형 ETF가 순자산 5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현재 아시아에 상

장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 추종 ETF 중 최대 규모다.

‘TIGER 미국S&P500 ETF’는 나스닥100, 다우존스30과 함께 미국 3대 대표지수 중 하나인 S&P500 지수를 추종한다. S&P500 지수는 미국 전체 시가총액 약 80%에 해당하는 대형주들을 포함하고 있어 미국 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반영한다.

올해 미국 증시는 높아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기업실적과 경제 지표

들이 발표되면서 연초부터 랠리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미국 중앙은행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하면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증시에 대한 높아진 관심 속에 ‘TIGER 미국S&P500 ETF’는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ETF로 나타났다. 올해만 약 1조3500억원의 개인 순매수가 유입, 올해 국내 상장된 전체 ETF 중 개인 순매수 1위를 기록했다. 지난 6일 기준 ‘TIGER 미국S&P500 ETF’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30.1%를 기록 중이다. /허정윤 기자

ELS 미상환 발행 잔액 전년대비 25% 급감

예탁결제원, 3분기 잔액 48조 집계

주거연계증권(ELS) 미상환 발행 잔액이 1년 새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ELS 미상환 발행 잔액은 전년 동기(64조2468억원) 보다 25.1% 감소한 48조1489억원으로 집계됐다. 직전 분기(50조7457억원) 대비로는 5.1% 감소했다.

ELS 발행 금액은 9조4069억원으로 전년 동기(9조9228억원) 대비 5.2% 줄었다. 발행종목 수는 3116종목으로 전년 동기(3945종목) 대비 21% 감소한 반면, 전분기(2850종목)와 비교해서는 9.3% 늘었다.

발행 형태별로는 공모 발행이 83.2%(7조8247억원), 사모 발행이 16.8%(1조5822억원)를 차지했다.

기초자산 유형별로는 지수형(국내외 지수) ELS가 5조6781억원으로 전체의 60.4%로 집계됐고, 국내외 해외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종목형 ELS는 3조4626억원으로 36.8%를 차지했다.

3분기 ELS 상환금액은 11조954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11조9813억원) 대비 0.2%, 전분기(19조2989억원) 대비 38.1% 줄었다.

상환 유형별로는 만기·조기상환 금액이 각각 6조3229억원, 4조8216억원으로 전체 상환금액의 52.9%, 40.3%를 차지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투운용 ‘초단기 채권’ 투자 공모펀드 출시

‘한국투자초단기내일드림펀드’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초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한국투자초단기내일드림펀드’를 한국투자증권에서 출시한다.

7일 공개된 ‘한국투자초단기내일드림펀드’는 한투운용이 선보이는 첫 번째 초단기 채권형 공모펀드다. ‘초단기채권형 공모펀드’란 만기가 3개월 이하인 우량 단기채권을 담은 금리형 상품으로 하루만 투자해도 이자수익이 누적되는 ‘파킹형 상품’이다. 또한 환매 신청 시 2영업일(T+1) 기준가로 2영업일에 지급(17시 이전 신청 기준)되어 머니마켓펀드(MMF)와 유사하게 환매주기가 짧아 환금성이 높다.

이 펀드의 주요 편입 자산은 안정성이 높은 ▲A-등급 이상의 채권(국채, 지방채, 특수채, 통안채, 은행채, 기타 금융채, 회사채 등) ▲A1~A2등급의 기

업어음(CP 및 전단채) ▲현금성 자산(양도성예금증서(CD), 정기예금, 발행어음 등)이다. 해당 펀드는 가격 변동 최소화를 위해 가중평균만기(듀레이션)는 0.15년 내외 수준으로 유지한다.

한국투자초단기내일드림펀드는 세 가지 전략을 통해 초과수익도 추구한다. 우선 종목선택 전략으로 동일 등급 내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을 분석해 높은 투자 메리트를 가진 채권을 선택한다. 한투증권 측은 “이자수익 추구 전략을 통해 만기가 짧고 YTM과 유동성이 높은 크레딧 채권을 선정해 보유이익을 극대화 한다”며 “환매조건부(Repo)매도를 활용해 펀드 총액의 50% 이내에서 단기 유동성을 확보하고, 조달된 자금으로 추가적인 투자 기회를 모색한다”고 설명했다. 위험 관리 방안으로는 환매 발생 시 원활한 대응을 위해 펀드의 안전자산 비율을 유지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변전소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해야”

김동철 한전 사장, ‘빅스포’ 간담회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불허 논란 주민 인센티브 등 수용성 방안 고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경기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 불허 결정과 관련 “변전소는 이제 파출소처럼 국민과 함께 더불어사는 걸로 국민이 이해할 때가 됐다”며 “근린생활시설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일 오후 ‘빅스포 2024’가 열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자파 국제 기준은 200 마이크로테슬라로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83마이크로테슬라를 유지하고 있다. 전자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물론 (주민들과의)소통이 부족해서 벌어진 문제라고 보지만, 이제 국민들이 근린생활시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전 아트센터는 4층까지 변전소가 2개나 있고, 5층부터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며 “전국에 수많은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빌딩에는 변전소가 있고, 아파트에도 변전설비가 있다. 변전소는 우리 생활의 일부”라고 했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 8월 한전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옥내화 건설 등 4건의 허가신청을 전자파를 우려하는 주민 반대를 이유로 불허했다. 해당 사업은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연결하는 초고압직류송전(HVDC) 건설의 일환으로, 한전은 하남시 갑일동 일대연면적 6만4570㎡ 규모 변전소를 2026년까지 옥내화, HVDC 변환설비를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하남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지난 6일 에너지산업 박람회 ‘빅스포 2024’가 열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한전

의 해당 건설 불허 처분에 한전은 경기도에 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 내달 16일 1차 심리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동서울 변전소 건설이 미뤄지며, 수도권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 송전망 구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서철수 전력계통본부장은 “데이터센터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발전설비는 전부서해안이나 동해안에 있다보니 수도권에 대규모 송전망 건설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행정심판)심리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서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 본부장은 국내 14개 송전선로(1153km) 사업과 관련 입지선정 설명회를 하고 있다며 “토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토지 소유주에 대한 토지 사용 협의의 진행 시 조기 협의하는 소유주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 등 주민 수용성 향상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한 것과 관련 “정부가 물가나 소비

심리 등 전반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었다”면서도 “아직도 지난 2021년~2023년까지 원가 인상요인이 다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7년말까지 자체 사채 발행이 2배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주태양요금을 포함해 모든 중별 전기요금이 아직도 원가 밀돌고 있다고 봐서 인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트럼프 당선시 향후 미국 시장 진출 전망에 대해서는 “기회와 위기가 공존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한전 관계자는 “미국은 전력망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누가 당선되든 이걸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뤄질 것”이라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중부 텍사스 동부 중서부 등등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새로운 송전망 사업들의 발주가 내년 또는 내년후까지 예정돼 있다. 그런 부분을 미국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고 향후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배달 오토바이’ 전기차 전환 속도 낸다

환경부, ‘전기이륜차 보급 협약’ 2026년까지 비중 20%로 확대

정부, 지자체, 기업은 저소음 등 친환경 배달 문화를 정착시키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배달용 내연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데 힘을 모은다.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7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의 친환경 배송 촉진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 ▲서울시 ▲종로구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 ▲LG에너지솔루션 ▲대동모빌리티 ▲KR모터스 등 총 8개 기관대표와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전기이륜차 구매를 지원하고, 국가표준형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Battery Swapping Station)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륜차 종류와 상관없이 국가표준(KS)에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가운데)과 임직원들이 지난 6일 에너지산업 박람회 ‘빅스포 2024’가 열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한전

맞는 배터리를 탈·부착할 수 있는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소유자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에서 완충 배터리를 대여해 별도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한다.

종로구, 동대문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을 홍보하고,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 대동모빌리티, KR모터스는 소상공인의 전기이륜차

구매를 돕고, 국가표준형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이 적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화재예방 등 안전한 전기이륜차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시는 오는 2026년까지 내연이륜차 대비 전기이륜차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올해 9월 기준 서울시 내 등록 이륜차 총 42만6000대 중 전기이륜차는 약 1만6000대(3.7%)에 그친다.

기업들은 화재에 안전한 전기이륜차와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보급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 지자체, 업계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전기이륜차 운행이 늘고, 소상공인 사이에서 전기이륜차 구매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다문화 결혼 급증, 전체 결혼의 10% 넘어

통계청,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지난 2020년 초 이후 1~2년간 코로나19 탓에 줄어든 바 있는 국제결혼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10쌍 가운데 1쌍 이상의 혼인은 내국인과 외국인 간에 이뤄졌다. 신랑은 45세 이상, 신부는 30대 초반이 가장 많았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23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2만431건으로, 전년대비 17.2%나 늘었다. 다문화 혼인 건수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 왔으나, 2020년(1만6200건)과 2021년(1만3900건) 등 2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이후 2022년 반등을 시작했고 2023년 2만 건대를 4년 만에 회복했다.

전체 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10.6%로 1.5%포인트(p) 커졌다. 이 수치 역시 2015년 7.4%→2016년 7.7%→2017년 8.3%→2018년 9.2%→2019년 10.3% 등 꾸준히 늘고 있었다. 이후 2020년(7.6%)과 2020년(7.2%)에 쪼그라들었다가 2022년 회복세에 들어섰다.

다문화 유형별로는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 비중이 69.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국인 남편 17.9%, 귀화자 12.3% 순이었다. 다문화 혼인을 한 남편의 경우 45세 이상의 비중이 33.2%로 가장 컸고, 30대 초반(18.6%), 40대 초반(17.0%)이 그 뒤를 이었다.

다문화 혼인을 한 아내의 경우 30대 초반이 비중이 23.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20대 후반(22.6%), 30대 후반(15.2%) 순이었다.

다문화 혼인 중 남편과 아내 모두 초혼인 비중이 5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모두 재혼(19.0%), 아내만 재혼(13.3%), 남편만 재혼(11.4%) 순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 베트남 혼인 건수가 회복되고 있다. 지난해 다문화 혼인을 한 외국인 및 귀화자 아내의 출신 국적 비중은 베트남이 27.9%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 비중은 전년에 비해 4.9%포인트(p) 증가했다. 건수로는 1696건 증가한 5697건을 기록했다. 중국(17.4%)은 0.4%p 줄면서 2위로 밀려났다. 건수도 3324건에서 3104건으로 220건 감소했다. 3위 태국은 1.2%p 줄어든 비중 9.9%를 기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식품부, ‘저탄소인증 농산물’ 적극 도입

이마트 등 국내 6개 유통사와 협약

농림축산식품부가 7일 국내 6개 유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저탄소 농산물’의 유통·소비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이마트와 마켓컬리, 롯데마트, 현대그린푸드, 올가홀푸드, 농협경제지주가 참여한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 대상이다.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품목별 평균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에 한해 인증하는 제도다.

최근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강화 추세로 저탄소 인증 농가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유효인증 농가는 2019년 3976곳에서 지난해 9085곳으로 100% 넘게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농업계 변화가 소비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6개 유통사와



국내의 한 친환경 농산물 매장. /뉴스

유통·소비 활성화에 협력한다. MOU 참여 유통사들은 올해 대비 내년도 저탄소 농산물 물량을 5~10%가량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8일부터는 저탄소 농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각 유통사의 일부 지점에서는 저탄소 농산물을 10~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공무원 부부, 출산·육아 등 지원 강화

권익위, ‘전출제한기간’ 예외적용 권고

앞으로 공무원 부부가 출산과 자녀 양육을 위해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생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서로 다른 근무지로 인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기 어려워 자녀 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는 맞벌이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익위는 결혼이나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공무원, 육아기 공무원 등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전출을 원할 경우, ‘전출제한기간’ 중이라도 예외적으로 전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인사혁신처와 행안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임신·육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이 부부가 함께 살기 위해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관련 전출 허용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안부에 장기적인 검토를 제안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주제 : 초현실사회로 :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

일시 : 2024년 11월 20일(수) 14:00~17:10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추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문의 : 2024 뉴테크놀로지포럼 사무국 02)721-9818

참가비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초현실사회로 A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

2024 뉴테크놀로지포럼

2024년 11월 20일(수) 오후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쿠팡, 로켓배송 거점될 '김천첨단FC' 짓는다... 1000억 투입

(물류센터)

내년 9월 준공... 연면적 9600만평
경북도·김천시 일대 '로켓배송' 확대
500여명 고용... 청년고용 증대효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쿠팡이 경상북도 김천시에 김천첨단물류센터(FC)를 착공한다.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500명 이상의 직고용 창출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은 7일 오후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에 위치한 김천1일반산업단지에서 김천첨단물류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중섭 김천시장,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시), 박대준 쿠팡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7일 열린 쿠팡 김천첨단물류센터 착공식에 참석한 김중섭 김천시장, 박대준 쿠팡 대표, 송언석 국회의원(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쿠팡

이번에 착공한 김천첨단물류센터는 내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총 투자금 1000억원 이상을 들여 연면적 약 9600

평 규모로 짓는다. 이를 통해 경상북도 및 김천시 일대 '로켓배송' 거점으로 활용 계획이다. 쿠팡은 지난 2020년 경

상북도 및 김천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번에 착공에 들어갔다.

김천첨단물류센터는 500여명을 직접 고용할 예정으로 특히 청년고용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이외에도 물류센터 건립 및 운영을 통한 지역 내수 확대, 전국 단위로의 판로 확보를 통한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경북 및 김천 지역의 로켓배송 권역 확대로 주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중섭 김천시장은 "쿠팡의 김천첨단물류센터 착공을 축하드리며, 물류센터 건립이 지역경제에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물류센터의 정상 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행정적 지원을 약속 드

린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회의원은 "김천시민과 함께 노력해 온 물류센터 투자 유치가 결실을 맺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쿠팡의 대규모 물류센터 투자로 인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성장은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김천지역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김천첨단물류센터가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송언석 국회의원님, 김중섭 김천시장님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서울시, 준공업지역 규제 대폭 손질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탈바꿈
공동주택 건립 시 최대용적률
현행 250% 이하 → 400% 확대

서울시가 제조업 중심지를 직·주·락(職·住·樂)이 어우러진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준공업지역의 규제를 푼다.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준공업지역은 1960~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과거 국가 성장을 주도했으나 현재는 낙후되고 침체된 곳들이 대부분이다. 서울 영등포·구로·금천·강서·도봉·성동구 등에 총 19.97㎢ 규모의 준공업지역이 지정돼 있다.

우선 시는 기존 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산업단지재생형으로 나뉜 준공업지역의 복잡한 정비 유형을 산업복합형(공장 비율 10% 이

상)과 주거복합형(공장 비율 10% 미만)으로 재편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면적에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이전에는 공장 비율 10% 이상 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1만㎡ 이상은 산업 부지와 공동주택 부지를 엄격히 분리하는 부지분할 방식으로, 3000㎡ 이상~1만㎡ 미만 부지는 산업·주거 복합건물 방식으로만 개발이 가능했다.

또 시는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부지 3000㎡ 이상 대상) 수립 시 최대 용적률을 현행 250% 이하에서 400%까지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풀어 사업성을 개선했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150%는 기존 공공시설 기부채납은 물론 공공임대주택 공급,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항목까지 적용 가능하도록 다

양화한다.

기준·허용용적률도 현행 210%, 230%에서 230%, 250%로 각각 20%p씩 올린다. 상향 조정된 허용용적률 20%p는 공공보행통로, 열린단지 등 '개발사업형(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에서 정한 항목을 적용한다.

아울러 시는 산업 기반 확보를 위해 준공업지역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 이용 현황과 계획을 고려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을 유연하게 조정·운용할 방침이다.

시는 "대상지는 중심지 기능 고도화를 위해 업무 등 고밀 개발이 필요한 지역과 이미 주거화 돼 산업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다"며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울 때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병행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hjk1@



반일행동,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11·3 학생의 날 대 학생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대학교수, '尹 대통령 하야' 시국선언 동참

가천대, 한국외대, 숙명여대 등부터
'국립' 인천대, 충남대 교수들 참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연일 불거지며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대학 사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지난달 28일 가천대를 시작으로, 한국외국어대, 숙명여대, 한양대, 가천대, 전남대 등으로 퍼지고 있다. 충남대 교수들도 7일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7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회(민교협) 충남대분회에 따르면, 충남대 교수 80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교수들은 시국선언에서 "대통령 부인 등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능한 대통령 머리 위에서 국정 간섭을 해왔다는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 미래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즉각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6일에는 인천대 교수들이 국립대로는 처음으로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6일 인천 연수구 인천대 송도 캠퍼스에서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전하는 인천대학교 교수 일동' 명의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최고 공직자로서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본인이 결단해 즉각 하야하라"고 촉구했다.

대학생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3일 '학생의 날(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아 반일행동과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건희 정권 탄핵하자'는 팻말을 들고 시국선언을 했다. /이현진 기자 ihj@

서울시교육청

사립초등학교 38곳

신입생 원서접수 실시

서울시교육청은 8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내 38개 사립초등학교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원서접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사립초 신입생 모집은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통합 전산 사이트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원서 접수는 진학 어플라이 사이트를 통해 8일 금요일 9시부터 13일 수요일 16시 30분까지 24시간 가능하다.

사이트에 접속한 뒤 ▲초·중·고교 바로가기 클릭 ▲2025학년도 공동원서접수 '서울특별시 사립초등학교' 클릭 후 원서접수를 하면 된다.

신입생 입학추첨은 38개 사립초등학교에서 18일 10시 동시에 이뤄지며, 자세한 추첨 방법은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현진 기자 ihj@

김포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진행

5개社 참가... 133명 인원 채용 목표

김포시는 지난 5일 김포시민회관 3층 다목적홀에서 제6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김포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구인 기업과 취업희망자를 직접 연계하는 채용행사로 구인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면 누구나 방문해 참여 가능하다.

이날 만남의 날에는 5개 기업이 참가해 조리사, 운전직, 특수경비, 생산, 물류 등 다양한 직종에 133명의 인원 채용을 목표로 1:1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구직자 총 63명이 면접에 참여했다.

채용행사 외에도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경력단절여성 구직상담,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서민금융지원센터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등을 진행해 행사에 참여한 구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채용 컨설팅을 실시하여 참가자



지난 5일 김포시민회관 3층에서 열린 '제6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참석한 기업체와 구직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김포시

들의 구직활동을 도왔다.

아울러 김포시일자리센터에서는 이번 달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관내 청년 구직자 대상 '채용서류 및 면접준비 취업 필수전략'을 주제로 한 멘토링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통합일자리정보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휘중 기자 yhj@

서울시, 시흥동 등 3곳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도시계획위원회, 시흥1·상계·온수동 통과

서울시는 이달 6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상계동 154-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안과 경관심의안 등 3건이 수정 가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안 가결에 따라 금천구 시흥1동 871번지 일대는 45층 이하, 16

개 동, 총 2072세대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제1종·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이 제2종(7층 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상향됐다.

이번에 가결된 세 안건은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개선 방안을 적용한 첫 사례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재건축·재개발이 지지부진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용적률 산정시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높여주겠다고 발표했다. /김현정 기자

임종훈 “한미 경영권 사수... 2028년 그룹이익 1조 목표”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한미그룹, 중장기 성장전략 발표
 “기타세력에 경영권 좌지우지 안해
 주주선택 받은 현행체제 계속돼”
 R&D 역량개선 등 6개 과제 제시
 비유기적 성장·다각화 ‘키워드’



7일 오후 서울 글래드여의도호텔에서 열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한미그룹 밸류업 및 중장기 성장 전략’ 발표회에서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한미약품그룹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훈·종훈 ‘형제’ 측과 한미약품그룹 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비롯해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 임주현 한미약품 부회장 등 ‘3자 연합’ 측의 갈등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다.

7일 오후 서울 글래드여의도호텔에서 한미약품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한미그룹 밸류업 및 중장기 성장 전략’을 발표에 앞서 “한미약품그룹은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를 통해 지배되고 그룹 전반의 경영을 오너 일가나 특정 대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들의 신임을 받는 이사회를 통해 이뤄진다”며 경영권에는 변화가 없음을 자신했다.

이날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 결과를 자신하며 한미약품그룹

경영권을 뺏기지 않고 현행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2026년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등 지주사와 핵심 계열사에서 이사회를 강화하고 아울러 그룹사 전체를 경영해 사업 안정화를 이룬다는 전략이다.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오는 11월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 결과와 관계 없이 저를 중심으로 하는 경영 체제는 2027년까지 계속될 것이고, 12월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이사진 재편을 통한 새 리더십이 구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종훈 대표는 “한미약품그룹

경영권은 제3자나 기타 세력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 지난 3월 주총을 통해 주주분들의 선택을 받았고, 현재 이사회 신임을 받고 있는 저를 중심으로 현행 체제가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미사이언스는 중장기 성장을 위한 주요 과제로 6가지를 제시했다. ▲ M&A, 코프로모션을 통한 치료영역 확대 ▲글로벌 혁신 신약 R&D 역량 개선 ▲한미사이언스의 헬스케어 밸류체인 사업 다각화 ▲정밀화학의 원료 위탁개발(CMO)·위탁개발생산(CDMO) 사업 확대 ▲온라인팜의 상품 구색 다양화 및

물류 역량 강화 ▲제이브이엠의 유럽 및 북미 등 신규 시장 개척 등이다.

이를 통해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2028년까지 한미약품그룹 이익을 1조 원대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그 결과, 한미약품그룹은 연평균 매출에서 13%씩 성장했던 것에 비해 2%포인트 상회하는 수준을 달성하게 되고, 영업이익도 현재 10%에서 약 13.7%까지 개선하겠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한미사이언스는 2가지 키워드 ‘비유기적 성장’과 ‘다각화’도 내세웠다. 한미사이언스는 중장기 성장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인수합병에 약 5500억원, 연구개발에 2000억원 등 최대 8000억원의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사이언스는 제약업계에 대한 이해가 있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투자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협상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 자금 확보에 대해서는 한미사이언스 측은 말을 아꼈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M&A 과제들이 여러 가지 있고, 실제로 어떤 것은 초기 단계인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것은 깊이 논의되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투자자들과의

이해 관계에 따라 쉽게 밝힐 수 없는 부분이며 자본시장법 관점에서 지금 공개할 순 없다”며 “그렇지만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투자 유치’는 대주주 간 분쟁과는 관련이 없다”고 단언했다.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 아니라 회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고, 외부 투자 자금이 유입되는 것에 대해 과거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며 OCI그룹과의 통합을 추진했던 ‘3자 연합’ 측이 반대한다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미사이언스 측의 입장이다.

한편, ‘3자 연합’ 측은 한미사이언스의 발표에 대해 지난 2023년 한미그룹이 도출한 전략보고서를 ‘짜깁기’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3자 연합’ 측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한미사이언스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작성한 ‘밀실’ 보고서가 외부세력 유치를 통한 일부 주주의 부채 감가에 활용됐다”며 “아무리 아름다운 청사진도 실행하는 사람들의 힘이 모이지 않으면 신기루에 불과하다. 지난 3월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 당시, 주주들을 현혹했던 ‘시총 200조 달성’, ‘바이오의약품 100개 생산’과 같은 공허한 비전의 기시감이 들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청하 기자 mllee236@metroseoul.co.kr

불닭볶음면 ‘KFS인증’... 글로벌 경쟁력 끌어올린다

삼양식품, 오리지널·까르보 제품과 원주 등 생산공장 3곳서 모두 획득 내달 생산 수출용 제품에 로고 표시



KFS 인증 마크(왼쪽)와 KFS 인증 마크가 있는 불닭볶음면. /삼양식품



삼양식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오리지널과 까르보불닭볶음면 등 2개 제품과 원주·익산·밀양공장 등 생산공장 3곳 모두가 KFS(K-Food Safety) 인증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KFS 인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내식품의 세계화를 위한 식품인증제 시범사업’으로 ‘식품안전국가인증’과 ‘자국생산증명’ 등 2개 분야 모두에서 인증을 받아야 획득할 수 있다.

식품안전국가인증은 기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리 ▲의도적인 오염을 방지하는 식품방어 계획 ▲식품을 고의로 변조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식품사기의 예방 등을 강화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개발한 인증제도다.

자국생산증명은 한국산 제품이 외국

산과 혼동되지 않도록 국내 소재 공장에서 생산했음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인증하는 제도다.

특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원료부터 공정 단계를 거쳐 제품이 출시되기까지 수출 상대국이 인정하는 시험법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시험법에 따라 수출 상대국의 기준과 규격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한해 KFS인증을

발급한다.

삼양식품은 12월부터 생산하는 수출용 불닭볶음면 오리지널과 까르보불닭볶음면 제품에 KFS인증 로고를 표시할 예정이다.

또 삼양식품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협력해 수출전진기지인 밀양공장에 디지털기반 선진 식품방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식품제조공장의 의도적인 오염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삼양식품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개발한 식품방어 솔루션을 통해 밀양공장 맞춤형 식품방어계획을 수립했다. 밀가루, 팜유 등 원재료 투입구역에 스마트락으로 설계된 디지털 식품방어 센서를 설치함으로써 승인되지 않은 인원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고객만족도 1위 기념 LG생건 ‘70% 할인’

일주일간 ‘럭키뷰티 그랜드워크’

LG생활건강은 올해 국가고객만족도 1위 수상을 기념해 7일부터 일주일간 화장품 브랜드별 대표 제품을 중심으로 70% 할인하는 ‘럭키뷰티 그랜드워크’를 진행한다

앞서 LG생활건강은 한국생산성본부가 발표한 2024년 국가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여성화장품 제조업 부문’ 1위를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LG생활건강 대표 화장품 브랜드인 ‘더후’를 포함해 ‘숨37’, ‘발리프’, ‘CNP’, ‘더페이스샵’, ‘글린트’ 등 화장품 13개 전 브랜드가 참여한다.

오는 13일까지 백화점과 면세점, 헬스앤뷰티(H&B)스토어 등 오프라인 매장과 각 브랜드 공식몰, 네이버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 채널에서 진행된다. 구체적인 행사 기간은 브랜드와 유통 채널에 따라 다르다.

LG생활건강은 화장품 브랜드별 대표 품목을 소비자에서 70% 할인한 30% 가격으로 한정 수량 판매한다. ‘더후 비집 순환에센스 130ml’는 11만 5000원에서 3만 4500원, ‘숨37’ ‘타임 에너지 플럼렌징’은 4만 원에서 1만 2000원, ‘비온드’ ‘엔젤아쿠아 플럼핑립세린’은 1만 5000원에서 4500원, ‘더페이스샵’ ‘미감수 쌀겨 스크럽폼 150ml’는 1만 원에서 3000원 등으로 판매한다.

LG생활건강은 행사 제품 구매 시 상품 1개를 추가 증정하는 ‘1+1 행사’와 구매 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하는 ‘파우치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청하 기자

KT&G, 3분기 담배사업 매출 ‘사상 최대’ 달성

연결기준 매출액 1조 6363억 기록 영업이익 2.2% 늘어 4157억 집계

KT&G가 올 3분기 담배사업부문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KT&G는 7일 기업설명회를 통해 3분기 경영실적과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 6363억원, 영업이익은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4157억원으로 집계됐다.

3분기에도 본업 중심의 성장세가 지속됐다. 해외관련, 전자담배(NGP), 건강기능식품을 중심으로 한 3대 핵심사업 매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고, 담배사업부문 매출액도 분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담배사업부문 매출액은 1조 47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330억원으로 23.6%의 성장률을 기록해 매출액 성장률을 상회했다. 담배사업부문에서는 특히 해외관련사업의 성장세가 돋보였

다. 3분기 해외관련사업 매출액은 419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5% 증가하며 지난 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을 새로 썼고, 수량과 영업이익도 각각 10.1%, 167.2% 증가하며 수량, 매출, 영업이익이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성장’을 달성했다.

한편, 이날 KT&G는 2027년까지 자기자본이익률(ROE) 15% 달성, 현금환원과 자사주 소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업그레이드된 ‘KT&G 기업가치 제고계획’도 발표했다.

KT&G는 지난 3월 방경만 사장 취임 이후 ‘글로벌 톱티어(tier)’로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중심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룹의 재무 구조 고도화에 주력해왔다. 특히 수익성 향상, 자산효율화, 재무 최적화를 3대 축으로 하는 그룹 ROE 제고 프로젝트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2027년까지 ‘ROE 15%’를 달성할 계획이다.

새로운 기업가치 제고계획에 따라 2024년 주주환원도 확대된다. 이날 KT&G 이사회는 비핵심·저수익 자산 유동화로 확보된 재원 중 약 1500억 원을 활용해 자사주 135만 주를 매입 및 연내 소각을 결의했다.

/신원선 기자

삼성전자, AI TV 중심 '고객 만족도 조사' 4관왕 달성

4개 기관 주관 조사서 모두 1위
프리미엄 라인업, 좋은 평가 받아
美 ACSI서도 18년 연속 1위

삼성전자가 올해 국내 주요 기관이 주관하는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4관왕을 달성했다. 인공지능(AI) TV를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라인업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글로벌경영협회(GMA), 한국생산성본부(KPC),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한국표준협회(KSA) 등 4개 기관이 주관하는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삼성전자는 GMA 주관 글로벌 고객만족도조사(GCSI)에서 TV 부문 20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네오(Neo) QLED 8K' 이미지. /삼성전자

KMAC의 한국산업의고객만족도(KCSI) 조사에서도 프리미엄 TV 시장 내 입지를 바탕으로 27년 연속 TV 부문 1위를 기록했다.

또 KSA 한국품질만족지수(KS-QE

I) 조사에서는 15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AI TV를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라인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네오(Neo) QLED 8K'와 같은 프리미엄 제품에 'AI 모션 강화 프로

같은 고도화된 AI 기술을 탑재한 것이 혁신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TV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소비자만족지수협회(ACS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84점을 기록하며 1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ACSI는 "삼성이라는 오랜 기간 글로벌 TV 시장을 선도하며 지속적인 제품 혁신을 통해 소비자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전 세계 TV 시장에서 금액 기준 28.8%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지켰다.

/구분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이창용 한은 총재, BIS 총재회의 참석

한국은행은 7일 이창용 총재가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BIS 총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8일 출국해 13일 귀국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세계경제회의와 전체 총재회의에 참석해 회원 중앙은행 총재들과 최근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은행



현대모비스, 안전 교육시설·체험관 설립

현대모비스는 충남 아산에서 'SH&E 아카데미 안전체험관' 개소식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SH&E 아카데미는 현대모비스가 안전 분야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임직원과 협력사의 안전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자체 교육 시설이다. 현대모비스는 이곳에 체험형 안전교육에 특화된 안전체험관을 추가로 설립했다. /현대모비스



한화비전, 저소득층 이동과 '캠크닉' 행사

한화비전이 지난 6일 용인 소재 캠핑장에서 성남시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40여명과 함께 진행한 '내가 그린 비전' 캠크닉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렸다. '내가 그린 비전' 행사는 한화비전이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다. /한화비전



IBK기업은행, 해군 모범장병 지원

IBK기업은행이 지난 6일 해군 재경군무지원대대를 방문해 해군 모범장병 지원을 위한 위문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위문금 전달식에는 김인호 해군 인사참모부장과 유일광 IBK기업은행 개인고객그룹 부행장이 참석했다. 전달된 위문금은 어려운 경제적 환경에서도 묵묵히 해양수호의 임무를 다하는 모범장병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IBK기업은행



스타벅스, '소방의 날' 맞아 마음 전달

스타벅스 코리아가 국군장병에 이어서 11월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관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달하는 히어로(Hero) 프로그램을 이어나간다. 스타벅스는 11월 5일 종로 소방서에서 서울지역 소방서 8개소 1190명의 소방관들을 위한 커피와 푸드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스타벅스

구분준, 네 쌍둥이 가정에 1억 전달

(LX그룹 회장)

네 쌍둥이 얻은 직원에 출산격려금 가족 친화적 조직 문화확립 본격화

구분준 LX그룹 회장이 네 쌍둥이를 얻은 직원에게 1억원을 선물했다.

7일 LX홀딩스에 따르면 구분준 회장이 최근 네 쌍둥이를 얻은 정재룡 LX하우시스 청주구매팀 선임(36세)과 배우자 가미소 씨(33세)에게 출산 격려금 1억원을 6일 전달했다.

정 선임 부부는 네 쌍둥이인 서하(아들), 시하(딸), 도하(아들), 율하(딸)를 지난 9월 13일 출산했다.

구 회장은 출산 격려금과 함께 깜짝 축하 메시지도 보냈다. 메시지에서는 "가정의 큰 기쁨으로 자라날 네 쌍둥이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아이들의 힘차고 밝은 성장 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재룡 LX하우시스 선임 부부와 네 쌍둥이. /김승호 기자 bada@

구 회장은 평소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저출산 극복 방안에 대해 고민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출산 장려에 대한 구 회장의 확고한 의지가 이번 출산 격려금 전달로 대내외에 알려진 만큼 LX그룹의 출산·양육 등 제도적 개선과 가족 친화적 조직 문화 확립에도 본격 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승호 기자 bada@

한신대, 강의평가 우수강의 교수 8명 선정

김용훈 교수 '베스트티처상'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는 4일 경기캠퍼스 장공관에서 2024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 우수강의교수 시상식을 개최하고 김용훈 휴먼서비스대학 교수, 김지혜 인문융합대학 교수 등 8명에게 우수교수·강사 상을 시상했다고 7일 밝혔다.

2024학년도 1학기 우수강의교수로는 김지혜(인문융합대학), 김용훈(휴먼서비스대학), 이양선(AI·SW대학), 이익주(평화교양대학) 교수가 선정됐으며, 우수강의강사는 성은실(한국어문학), 이해원(일본학), 김윤정(평생교육학·HRD) 강사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김지혜 교수, 김용훈 교수, 성은실 강사가 참석했다.

강성영 총장은 "교수님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자리이다. 강의를 잘 한다는 것은 달란트를 넘어선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교육의 방향과 대학의 기능이 변화함에 따라 달라진 교수법과 강의 방식으로 한신이 교육에 있어 우월성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베스트티처상을 수상한 김용훈 교수(휴먼서비스대학)는 "2021년 임용되었을 때 학생들에게 좋은 교수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마음이 변치 않았음을 확인받는 자리인 것 같아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현진 기자 ihj@

공인회계사회, 환경보호 플로깅 진행

'줍깅! 깨끗한 환경, 투명한 세상'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환경보호 플로깅 행사를 진행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2일 미사경정공원 일대에서 '줍깅! 깨끗한 환경, 투명한 세상' 환경보호 플로깅 행사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줍깅은 '줍다'와 '조깅'의 합성어로, 걷고 달리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을 뜻한다.

이날 행사는 400여명의 공인회계사회 회원과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플로깅 활동 외에도 가족 단위 참가자를 위한 체험 부스와 문화공연, 경품 행사 등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지방공인회계사회에서도 이달 중에 자체



환경보호 활동 중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원 및 회원가족. /한국공인회계사회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창립 70주년 기념 첫 행사로 공인회계사회 회원들이 환경보호(E)와 관련된 작은 실천을 해보자는 취지로 줍깅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인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부이사관 승진 ▲ **자문건의국 자문건의과장** 정남수 ▲ **위원지원국 사업총괄과장** 이우식
◆ **커리어케어** ◇ 본부장 승진 ▲ **파이낸스** 본부 본부장 윤승연 ▲ **그로스본부** 본부장 유정록 ▲ **인사이드본부** 본부장 박형준 ▲ **비즈니스피플본부** 본부장 정민호(경영기획실장 겸임)

부음

▲ **심옥자** 씨 별세, 한광선(전 CJ대한통운 부사장) 씨 모친상=7일, 인하대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 9일 오전 5시 30분. 032-890-3192
▲ **이정남** 씨 별세, 박상현(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 기획관리팀장) 씨 장인상 = 7일,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 장지 인천가족공원. 032-890-3180

오늘의 날씨

11월 8일 (금)
음력: 10월 8일

수도권 날씨
4 ~ 1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7:04 | 해질 / 17:27

연천 -1/16, 동두천 0/17, 가평 0/16, 파주 0/16, 서울 4/17, 양평 3/16, 인천 5/16, 수원 5/17, 용인 5/17, 평택 4/1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약속 100호 어린이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희망이 처음 출발한
2019년 거제 1호 아주하나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열릴 때마다
아이들의 꿈도 자라나고

드디어 2024년 봉화 100호 석포하나어린이집에
웃음이 하나 가득 찼습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이 모두 행복한 그 날까지
하나금융그룹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은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지원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아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편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정부와 민간부문 부채 현황



송지승 교수의 경제 읽기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의 부채 규모와 수준은 증가하고 있다. 먼저 국가부채를 보자. 국가채무에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을 기준으로 하는 국가채무(D1)와 여기에 비영리공공기관의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D2)가 있다. 정부가 밝힌 2023년 국가결산보고서(D1기준)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23년에 50.4%로서 이제까지 나름 경계선으로 여겨왔던 5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IMF가 집계한 D2기준의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 55.2%로서 전년에 비해 1.4%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면 기업부채와 가계부채는 어떤가? 한국은행 자료에 나타난 우리나라 기업부채는 2023년 2734조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GDP 대비로는 122.3%를 나타내고 있다. 가계부채 또한, 2023년 2246조 원으로서 GDP 대비 105%

로 매년 그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정부, 기업, 가계 채무를 합쳐 보자. 정부 부채는 보수적으로 D2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1233.7조 원이고, 여기에 기업과 가계부채를 모두 합치면 총합계가 무려 6213.7조원 규모에 이른다. 이를 2023년 총인구로 나누면 국민 1인당 부채규모는 1.25억원이 된다. 과히 부채 공화국이란 말이 절로 나온다. 물론 혹자는 “국가채무 비율이 우리보다 유럽이나 일본이 더 심각한 100%를 상회한다”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런데 이들 나라의 기업 및 가계부채 비율은 우리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신용대출이 부동산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은행권에 대해 차입자의 주택담보와 신용대출을 포함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한도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의 부작용으로 부동산구매와 무관한 서민과 영세 소상공인들은 신규대출이 막혀 시름이 커지고 있다.

여기서, 2023년 정부와 민간의 부채가 GDP 대비 278%라는 사실이 우리 경제에

던지는 의미를 몇 가지 보자. 첫째는 부채 규모가 크더라도 자금이 생산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곳에 투입되고, 경제 신장으로 이어진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 과도하게 높은 부채 수준은 결국 소규모 개방국가인 우리 경제에 주는 외부충격이 매우 크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둘째는 채무조정을 통한 부채 축소가 필요하다. 부채는 은행권도 수익을 위해 제공한 부채이므로, 고정이자여신에 대해 채권자인 은행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부채 책임의 일부를 지게 하는 것이다. 채무조정에 의한 부채감축이 일시적으로 경기를 둔화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에는 긍정적이다.

셋째는 경제 신장을 위한 혁신경제의 강력한 추진이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벤처생태계가 현재의 흉내 내기식에서 벗어나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대수술이 시급하다. 채무조정과 혁신벤처생태계 작동이 여발통치(如拔痛齒)와 같은 묘수는 아니지만 진정한 부채해법이 되지 않을까?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불똥 해결은 우리의 몫



기지수첩 나유리 (금융부)

결국은 먹고사니즘 문제였다. 팬데믹으로 하루아침에 밥그릇을 빼앗긴 그들은 끝없이 오르는 물가에 분노했다. 불똥은 미국인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튀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는 관세를 높이고, 더 이상 외국인이 미국인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도록 이민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렇게 제47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됐다.

트럼프 당선으로 원·달러 환율은 급등(원화값 급락)했다. 7일 원·달러환율은 전 날보다 4.9원 상승한 1401.1원으로 출발해 오전 9시 30분께 1404.5원까지 상승했다. 장중 1413.5원까지 올라 지난 2022년 11월 7일 이후 2년만에 최고치다.

이처럼 치솟는 환율은 수출기업에 단기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미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업계는 국내 생산비중이 높고 해외 판매 시 달러 결제가 이뤄져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웨이퍼와 같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비용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항공 및 정유업계는 환차손의 부담을 안는다. 대한항공의 경우 환율이 10원 오르면 약 280억 원의 외화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정유업계는 원유 수입 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시장에선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속도도 더뎠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건 관세 인상과 이민제한 정책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독립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이 트럼프의 인하요구에 답할지는 만무하다.

대선을 지켜보면서 이수영 시인의 ‘어느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시가 떠올랐다. ‘나는 왜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 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나는 절정 위에는 서있지 않고 암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 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비켜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미국의 경기가 어려워진 직접적인 원인이 수입품에 대한 낮은 관세 때문인지,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다 차지해서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어찌됐든 불똥이 튀었다면 ‘불똥이 튀어서 놀랐다’가 아니라 불똥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환율리스크 등 단기적 변동성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형 시장을 개척하는 등 외부 충격에 강한 경제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yul11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8일 (음 10월 8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그물을 치지 않고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없다. 48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더 커진다. 60년생 희로애락을 얼굴에 나타내지 마라. 72년생 낙숫물에 바위가 돌리니 꾸준히 노력. 84년생 공연한 헛소문에 신경 쓰지 말도록.
- 소** 37년생 과대포장은 실망이 따른다. 49년생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내 마음도 따사롭게. 61년생 한밤중에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 73년생 가보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남는 하루. 85년생 지금의 재물은 과거의 고난에서 비롯.
- 호랑이** 38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50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척지에 도착하는 날. 62년생 힘든 일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해결. 74년생 내일의 영광을 위해 오늘은 참고 견뎌야 한다. 86년생 여러 사람의 직언이 부담스럽다.
- 토끼** 39년생 일의 결과가 좋아 명예가 높아지는 날. 51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둔 일을 마무리. 63년생 된다고 하면 정말로 그렇게 된다. 75년생 가장 큰 미덕은 결혼을 미루지 말고 가정을 갖도록. 87년생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낼 수.
- 용** 40년생 공연한 걱정은 일에 차질을 빚는다. 52년생 돌아갈 수 없는 길이기에 더 고통고 안타깝다. 64년생 머리는 아프고 몸은 천근만근. 76년생 희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 88년생 작은 실수를 확대하여 비판 받자.
- 뱀** 41년생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밤. 53년생 물과 사람은 생명과도 같으니 자연을 사랑하자. 65년생 허풍장자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벼들 나뉘. 77년생 지나온 시간이 더욱 소중한게 느껴진다. 89년생 먼저 10년 전 일을 생각 해봐라.
- 말** 42년생 대대손손(代代孫孫)이여지는 재물이 있겠는가. 54년생 땅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야만 비옥해진다. 66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선망의 대상일 뿐. 78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90년생 재개발 소식 오니 외출은 다음.
- 양** 43년생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어찌됐나. 55년생 불면증의 원인은 음식과 취침에 있을 것. 67년생 오랜 직언이 드디어 내게로 돌아온다. 79년생 파란색 옷이 행운을 불러오니 기분전환 된다. 91년생 투자 권유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
- 원숭이** 44년생 남에게 준 상처는 내게로 돌아온다. 56년생 바람이 불어오니 마음이 허전하고 인생이 허무. 68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잘 해결. 80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먹기 나름. 92년생 좋은 습관은 오래 간다.
- 닭** 45년생 뭉치면 잘될 확률이 높아진다. 57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여지지 실망은 금물. 69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81년생 결과 생각을 먼저 하지 말고 목표를 세워 나가보자. 93년생 아직도 문은 열려 있는 시간이다.
- 개** 46년생 아직 시간과 희망이 있다. 58년생 우물가에서 승승 찾지 말고 순서대로 행동. 70년생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조화가 깨진다. 82년생 운명의 코드는 한 치 앞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94년생 반드시 뿌리는 대로 거두는 법.
- 돼지** 47년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간절히 기도. 59년생 살게도만 있다고 집이 지어지겠는가. 71년생 가는 사람도 잡아할 때가 있다. 83년생 열심히 하면 못할 것이 없을 것. 95년생 연애사 내지는 결혼생활의 복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김상회의四季 유병장수라는 역설

옛날에는 무병장수를 덕담으로 건네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했지만 요즘은 유병장수라도 즉 어떤 병을 갖고 있으면서 오래 산다. 병이 있으면 건강을 더 관리하고 조심하기도 하는데 내 몸의 어느 부분이 취약하고 강한지 알면서 관리를 해나감이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자기 몸에 대해 잘 알 수는 없다. 몸은 타고난 체형과 체질이 평생을 간다. 어떻게 타고났는지를 아는 게 우선이다. 사주팔자는 개개인이 타고난 자연의 섭리를 알려준다. 사주를 분석하면 오장육부의 약하고 강한 부분은 물론이고 조심해야 할 질병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 질병은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으로 보는데 사주와 대운 그리고 세운의 음양오행을 배합해서 어떤 질병에 취약하고 강한지를 판단한다. 오행 중 목기운은 간 담 쓸개의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사주의 오행 중 목이 약하면 간과 담이 약하다. 반대로 목이 태과하면 간과 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나친 자신감이 오히려 병을 부르기도 한다. 술을 많이 마셔도 끄덕없다고 자신감을 보이다가 간질환을 얻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화火는 심장 소장 등 순환기 계통과 관련이 있다. 사주에 화가 많으면 몸에 열이 많고 심장계통이나 혈압 관련 질환을 조심해야 한다. 사람 몸의 오장육부는 오행의 생극제화와 음양 조화가 적당해야 병이 없다. 음양오행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지나치게 부족해서 조화를 잃으면 질병이 반드시 생긴다. 중요한 것은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남는 부분은 털어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인생의 전환점에서 유전적이든 갑자기 찾아오는 건강 이상 신호가 올 때가 있다. 무엇이 부족하고 넘치는지 알 수가 있다면 그에 따라 기운을 조절해서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1	7		4	2		9		3
	3					9		
		9						7
		4	5					2
	6						9	
7					6	4		
2						5		
			2				3	
6	5		8	7			2	4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도그램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2	1	4	8	9	6	9
6	9	9	1	2	7	7	8
8	7	7	6	9	9	1	2
1	8	7	9	9	6	2	9
9	6	7	2	7	8	1	9
2	9	9	1	2	7	8	6
7	7	8	9	1	6	2	7
9	1	2	6	9	2	8	9
9	9	6	8	2	7	9	2

2024 글로벌디지털초월대상 시상 및 컨퍼런스

The Edge of ACx : AI, CLOUD 비즈니스 성공 전략

2024. 11. 25.(월) 13시 40분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B1)



[제1부] 초월대상 시상식

일정	시간	내용	비고
13:40~14:00	20'	VIP 티타임	VIP룸(소회의실1)
14:00~14:02	2'	초월대상 시상 개회	사회자
14:02~14:27	25'	[기조강연1] 인공지능 전환(AI) 시대의 정부혁신과 전략	황종성 원장 (NIA)
14:27~14:50	25'	[기조강연2] 생성형 AI시대,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길	김득중 부원장 (NIPA)
14:50~14:53	3'	개회사	조풍연 회장 (한국SW·ICT총연합회)
14:53~14:56	3'	환영사	강도현 차관 (과기정통부)
14:56~14:59	3'	축사	강병준 사장 (전자신문사)
14:59~15:02	3'	축사	이장규 대표이사 (메트로경제)
15:02~15:30	30'	2024 초월대상 수상자 시상 및 사진 촬영	
15:30~15:40	10'	Break Time (컨퍼런스 준비)	사회자

[제2부] 컨퍼런스 개최 (The Edge of ACx : AI, CLOUD 비즈니스 성공 전략)

일정	시간	트랙1	트랙2
15:40~16:00	20'	AI가 이끄는 클라우드의 방향 김원일 이사 (투이컨설팅)	AI 일상화 시대 :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전환으로 지용구 대표 (더존비즈온)
16:00~16:20	20'	연계미들웨어 기반의 생성형 AI 및 RAG 연계 전략 이승형 실장 (메타빌드)	데이터 일관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한 통합솔루션 이동석 총괄대표 (한국정보기술단)
16:20~16:40	20'	주목하라! AI시대 증가량 비즈니스 구분홍 이사 (PCN)	생성형 AI기반 공공 AI 혁신 전략과 사례 표정수 이사 (클라이온)
16:40~17:00	20'	AI·클라우드가 리드하는 업무효율 극대화: 차세대 협업 전일권 상무 (가온아이)	사례로 보는 AI 테스트 김기범 이사 (와이즈와이어즈)
17:00~17:10	10'	경품 추천 (※ 아이패드, 스타벅스 상품권 등)	

주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한국SW·ICT총연합회

전자신문
The Electronic Times

metro

후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정부정보화협의회, 공공부문발주자협의회, 한국SW저작권협회, 정보시스템관리협회, 한국PMO협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데이터산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제로트러스트보안협회, 한국ICT융합협회, 한국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

문의 : 이석균 부회장 010-9132-0390

어디서든, 오직 맛으로만... 야타나, 그리고 그랜지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정치가 가능성의 예술이라면 야타나가 꼭 그렇다.”

프로이센의 재상이었던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정치를 가리켜 했던 말을 펜폴즈의 수석 와인메이커 피터 가고는 화이트 와인 야타나에 빗댔다. 좋은 품질의 포도라면 가능한 모든 곳에서 조달해 와인을 양조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였다.

일반인이라면 고개를 가우뚱 거린다. 어디서든 좋은 포도를 구해다 쓰겠다니. 너무나도 당연한 말 같아서다.

근데 와인업계에서는 예전이든 지금이든 굉장히 의아하게 여길 일이다. 보통 좋은 와인이라면 특정 지역, 더 나아가 특정 포도밭의 포도로만 와인을 양



(왼쪽부터)야타나, 빈 389, 그랜지.



(왼쪽부터)그랜지, 빈 389, 야타나. /안상미 기자

조한다. 토양과 기후 등 포도나무를 둘러싼 테루아를 중시여기는 탓이다.

펜폴즈의 생각은 좀 달랐다. 포도가 어디서 자랐든 오직 맛으로만 평가한다. 호주 와인 역사를 바꾼 그랜지도, 야타나도 그렇게 탄생했다.

호주 국가대표와이너리 펜폴즈라고 하면 그랜지를 먼저 떠올리겠지만 오늘은 야타나를 앞 줄에 세웠다. 최고로 꼽을 만한 레드 와인보다는 최고로 꼽을 만한 화이트 와인을 만나게 몇 배는

더 어려워졌다.

야타나야말로 태생부터 가능성에 기댔고, 가능성을 만들어냈다.

펜폴즈는 프리미엄 레드 와인인 그랜지의 성공 이후 프리미엄 화이트 와인 프로젝트에 돌입했지만 쉽지가 않았다. 최고의 화이트 와인을 양조할 만한 포도를 선별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다. 호주 최남단 서늘한 기후에서 천천히 익어 천연 산미와 다양한 향을 지닌 포도를 찾아내면서 가능해졌다. 와인

이름 ‘야타나(YATTARNA)’는 호주 원주민어로 ‘점차적으로’라는 뜻이다. 그만큼 길고 긴 과정을 거쳤다. 펜폴즈 와인은 대부분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다. ‘빈(BIN)+숫자’ 방식이다. 야타나를 가리키는 다른 품목명은 BIN 144다. 숫자가 보통 저장고 위치나 품종 등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과 달리 야타나는 144번의 연구 끝에 완성했다는 점에서 BIN 144가 됐다.

야타나 2019 빈티지는 타즈마니아와 아델라이드힐즈 등에서 자란 샤도네이로 만들었다. 감귤류에 시나몬, 캐모마일까지 다양한 향이 코를 사로잡더니 입 안에서는 신선한 과실과 둥근 산미에 미네랄이 조화를 잘 이룬다.

그랜지 역시 여러 지역, 다양한 포도밭의 포도로 만든다.

10명으로 구성된 와인메이커 그룹은 2주 동안 포도밭의 작은 구획을 말하는 파셀 약 1000곳에서 포도를 수확해 등급을 나눠 분류한다. A등급을 받은 포

도만 그랜지에 쓰이는데 비율로 보면 약 3% 안팎일 정도로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만 선별된다고 보면 된다.

그랜지는 스타일에 맞춰 매년 최고의 포도를 골라 만들다보니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일관된 품질을 보이는 와인 중 하나로 꼽힌다. 첫 빈티지 이후 70년 동안 25개 이상의 빈티지가 평론가나 외부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다.

조슈아임 펜폴즈 브랜드 앰버서더는 “그랜지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향과 함께 숙성 잠재력이 40~50년 이상인 와인”이라며 “실제 그랜지 1983 빈티지를 마실 기회가 있었는데 여전히 신선하게 생동감이 있다고 느꼈다”고 전했다.

최고의 레드 와인과 최고의 화이트 와인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펜폴즈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 상파뉴 지역에서 만들어낸 펜폴즈 샴페인과 함께 미국 나파밸리 카버네 소비뇽에 호주 슈라즈를 블렌딩한 상식을 뛰어넘는 와인도 선보일 예정이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누군가에게 위로가 돼줄 ‘패배의 기록’

‘인간 실격’은 다섯번의 자살 시도 끝에 세상을 뜬 일본 작가 다자이 오사무의 자전적 소설이다. 생을 비판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작가라서 그런지 이야기는 내내 음울하고 음산하다.

인간 실격의 주인공 오오바 요조는 타인과 세상을 통해 자신의 심연을 들여다보며 저 스스로를 파멸의 끝으로 몰고 간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에게 이 소설을 추천하는 이유는 거울 치료가 되기 때문이다. ‘세상이 자신을 억까(억지로 까 내림) 하고 있다’고 여기는 중이거나, ‘지구상에서 나보다 불쌍한 생명체는 없다’는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읽어봐야 한다. 저자는 주인공의 삶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못난 인간으로 살아왔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독자에게 당신은 나처럼 살지 말라는 따뜻한 조언을 건넨다.

성적 학대를 가한 집안의 며슴과 허녀, 앞에선 입안의 허처럼 굴다가 뒤돌아서자마자 함담을 늘어놓는 주변인들과 부대끼며 성장한 탓에 요조는 사람을 무서워하게 된다. “인간의 삶에는 서로 속이면서 이상하게도 전혀 상처도 입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듯 정말이지 산뜻하고 명량한 불신이 충만한 것으로 느껴집니다.”라고 털어놓을 정도.

사람이 두려운 요조는 익살스러운 행동으로 자신을 감춰 광대가 되기로 결심한다. 가족들 앞에서 외국의 희극 배우를 우스꽝스럽게 따라하거나 학교 체육 시간에 철봉을 향해 달려가다가 모래밭에 엉덩방아를 찧는 등의 바보짓으로 사람들을 웃겨 그들의 호감을 산다.

불행한 기벽에 시달리며 흥청망청 삶을 이어나가던 요조에게 친구 호리키는 “네 난봉도 이



인간 실격
다자이 오사무 지음/민음사

쯤에서 끝내야지. 더 이상은 세상이 용납하지 않을 테니까.”라고 충고한다. 요조는 ‘세상이라는 게 사실은 자네 아니야?’라며 속으로 발끈하지만 호리키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아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다.

주인공은 늘 이런식으로 갈등을 회피한다. 불합리한 폭력에 저항하지 않고, 자신을 깎아내리는 공격에 침묵한다. 그가 복수를 가하는 대상은 가장 만만한 저 자신이다. 요조는 술과 여자, 약에 점점 더 의지하며 지옥의 불구덩이로 천천히 걸어간다. 그가 망가지는 꼴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가족들을 요조를 정신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다.

‘신에게 묻겠습니다. 무저항은 죄입니까?’ 죽음의 문턱에 다다라서 요조가 한 질문은 그의 삶이 왜 이토록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한다. 책에는 신의 대답이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 절대자는 다음과 같이 답하지 않았을까. “저항하지 않는 자, 인간 실격.” 191쪽. 9000원. /김현정 기자 hik1@

미국 공산주의라는 로맨스

책은 미국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기록이자 저자 자신의 또 다른 자기 서사로, 새로운 저널리즘, 그리고 르포 문학의 탄생을 알린 역작이다.

90여년 전 뉴욕 브롱크스의 좌파 노동계급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비비언 고닉은 자신의 유년기를 가득 매웠던 찬란했던 세계가 한날 변방이었음을 깨닫고 깊은 충격에 빠진다. ‘바다 건너에

서 온 이름도 얼굴도 없는 악마’ 서부인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보인 무지함과 적개심은 그를 더욱 강경한 빨갱이로 만들곤 했다. 고닉의 마음속에 체증처럼 얽혀 있던 적대적인 경험은 페미니즘 운동을 계기로 언어를 찾기 시작한다. 사회 정의라는 이상에 열정을 쏟았던 미국 공산주의자들의 이야기.

480쪽. 2만7000원.

비비언 고닉 지음/성원 옮김/오월의봄



누가 진실을 전복하려 하는가

미국인의 19%는 9·11 테러가 미국 내부에서 공모한 일이라고 믿으며, 40%는 연방 약물관리국이 고의로 암 치료제를 숨기고 있다고 여긴다. 현재도 미국인 15%는 미국 정·재계가 세계적인 아동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는 사탄 숭배 소아성애자 집단 ‘큐어년’에 의해 조종된다고 믿는다.

이러한 현실 부정론은 어디서부터 시

작됐으며, 누가 무슨 목적으로 확산시키는 걸까. 포스트 트루스(post-truth) 현상은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며 진실을 숨기려는 역정보로 인해 생겨났다. 탈진실 사회의 구성원들은 과학 부정을 넘어 명백히 드러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다. 책은 역정보의 역사와 메커니즘을 파헤쳐 거짓의 민낯을 까발린다. 216쪽. 1만7000원.

리 매킨타이어 지음/정준희 해제/김재경 옮김/두리반



후기 자본주의 파시즘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 정부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포퓰리즘적, 파시즘적 정책을 펼치며 경제와 정치를 모두 무너뜨리고 있다. 책은 시민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인종 차별주의와 국수주의가 선거 정치를 지탱할 유일한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파시스트의 입지가 확장됐다고 설명한다. 후기 자본주의 파시즘은 잃어

버린 민족 공동체를 재창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의 모조품을 무대에 올리는 데 특히 능란함을 보여왔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기성 정치에 반기를 들며 등장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대표적인 예다.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문화 현상처럼 스며들고 브랜드처럼 만들어지는 후기 자본주의 파시즘을 파고드는 책. 160쪽. 2만2000원.

미켈 볼트 라스무센 지음/김시원 옮김/한울아카데미



뉴스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이스라엘, 미 대선일 레바논 폭격... 18살 로켓 파편에 사망 /사진 뉴시스
▲“미국 떠나자” 트럼프 당선 후 ‘캐나다 이주’ 검색 5000% ↑

▲독일, 새 병역제도 도입하기로... “유럽 위험 상황에 대응”
▲‘트럼프 폭풍’ 몰아친 뉴욕증시... 철강주 웃고 해운주는 울었다



▲트럼프 당선에 또 강달러, ‘슬픈 엔저’ 코너 몰린 디이시바
▲일론 머스크, 1000억원 베딩 성공... 트럼프 재집권 최대 수혜자 /사진 뉴시스

도심서 누리는 '휴양지' 사계절 빛깔로 물들다



아파트의 미학(美學) 왕길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

왕길역 도보권, 서울 9호선 직결 초·중·고 등 인근, 교육특화 단지 스타필드·코스트코, 인프라 다양

삼성물산 협업, 테마형 어드벤처 코끼리 등 함께하는 사파리월드 유럽식 로열 조경·조명 등 공간

최근 방탄한 인천 서구 왕길동 '왕길역 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왕로푸)', '로열파크씨티' 로고가 부각된 아파트의 정문은 황금색의 거대한 아치형 모양으로 고급스러움을 자아냈다.

시행사DK아시아가 왕길역 일대에 계획 중인 로열파크씨티(리조트형 주거단지)의 시범 단지로 지난 9월 입주를 시작했다. 인천 2호선 왕길역이 도보권에 있고 서울 9호선 직결이 확정됐다.

서울 강남까지 약 40분대(검암역 환승, 급행 기준)의 쾌속 교통망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구역 내에 왕길초, 검단중·고교, 청라달튼외국인학교 등이 위치해 안심 교육환경이 조성됐다.

스타필드 청라와 코스트코 청라, 청라 의료복합타운 등도 들어설 예정으로 생활특권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왕로푸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5개동, 총 1500세대의 대단지다. 가구 타입은 전용면적 ▲59㎡A·B ▲74㎡A·B ▲84㎡A·B·C ▲99㎡로 구성됐다. 신축 아파트에 걸맞게 깔끔하고 멋스러운 외관을 자랑하고 있었다.

1차형 동배치를 통해 모든 세대가 맞통풍 구조, 판상형, 남향 위주로 배치됐다. 모든 타입에서 4베이(BAY·전면부를 향하고 있는 방이나 거실의 수) 구조에 방 3개, 우물전정 등으로 설계돼 개방감이 느껴진다.

삼성물산리조트부문의 협업으로 버랜드를 담은 액티비티 어드벤처도 눈에 띈다. '사파리월드'에서는 코끼리와 코뿔소가 떼지어 살고 있는 대자연의 암벽과 코끼리협곡 사이 숨어 있는 동물이 상상력을 키워준다.

물대포와 파도를 헤쳐나가며 모험심을 키우는 '캐리비안베이', 동화속 상상의 세계가 펼쳐지는 알록달록한 환상의 나라 '이슈 빌리지' 등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동심도 깨워준다.

유럽을 담은 품격있는 로열조경과 조명도 돋보였다. '로열파크베이'에서는 다채로운 조명과 물소리로 가득한 로맨틱한 여유와 힐링을 느낄 수 있다. '퀸즈가든'에서는 유럽 왕실에서 볼 수 있는 고풍스러운 분수대와 세밀한 자수화단, 장미원 등 이색적인 풍경도 공유한다.

노블레스를 위한 커뮤니티가 조성돼 6성급 로열 티하우스를 만나볼 수 있다. 감성의 클래스를 높여주는 국내 최장 길이의 스카이워크가 휴식 공간을 이어준다.

차가운 바람에도 야외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돔포레스트'도 있다. 상쾌한 바람에 대왕참나무가 흔들리는 모습 보며 돔과고라에서 행복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아름다운 꽃들은 바람에 기대어 흐르고 산책을 나온 가족의 모습은 포근한 느낌을 안겨주는 '신비의 정원', 샘이 솟고 풀과 나무가 자라며 동식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자연을 표현한 '유토피아', 아름다운 자연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폭의 풍경화와 같이 공간을 구성한 '빛의 숲' 등의 공간도 있다.

커뮤니티 역시 거주민만을 위한 8개의 로열라이프를 테마로 7성급 호텔식 수영장, 북층형 인도어 골프연습장, 삼식 제공 서비스, 럭셔리 요트투어(추첨제), 프라이빗 상영관 등을 즐길 수 있다.

/전지원 기자 jjw13@metroseoul.co.kr



1 단지 내 분수대 및 조경시설 2 스카이워크 3 빛의 숲 4 캐리비안베이

/전지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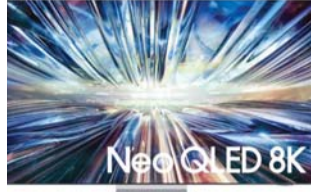


임종훈
“한미 경영권 사수
그룹이익 1조 목표”
나



Life

삼성전자
고객만족도 조사
TV 부문 1위
L2



“감기 조심하세요~” 60여년간 감기 물리친 ‘국민 상비약’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동아제약 ‘판피린’

1956년, 동아제약의 종합감기약 ‘판피린’이 처음으로 품목허가를 받으면서 국내 해열·감기약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후 1961년 본격적으로 생산과 판매에 돌입한 판피린은 60년 넘게 국민 모두를 위한 상비약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다.

‘판피린’이라는 이름은 그리스어로 모두를 뜻하는 ‘판’과 당시 해열제 주요 성분이었던 ‘피린’을 조합해 만들어졌다. ‘모두를 위한 약’이라는 의미를 담았다는 것이 동아제약 측의 설명이다. 특히 판피린은 강신호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이 동아제약에 입사해 만든 첫 번째 ‘약’이기도 하다.

동아제약에 따르면 6·25 전쟁을 겪은 후, 대부분의 국민은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작은 감기에도 크게 앓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시기에 판피린은 그간 치료의 중심에 없었던 ‘초기 감기’ 증상을 잡기 위해 나섰다. 전쟁 후 유증으로 취약해진 생활환경에서 감기가 초기에 시작되며 나타나는 목의 따끔함, 오한, 코막힘 등 다양한 증상 완화에 집중할 것이다.

그 결과 동아제약은 ‘초기 감기엔 판피린’이라는 공식을 확립하게 됐고, 판피린은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상비약으로 자리잡게 됐다.

판피린은 맨 처음에는 알약 형태로 발매됐다. 주요 제형인 액상 형태는 1963년 ‘판피린 내복약’으로 등장했고 1966년 주사제, 1973년 시럽제 등으로 판피린은 발전을 거듭해왔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도 동아제약은 판피린F(1990년), 판피린Q(2007년) 등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신제품을 선보여 왔다. 빠른 흡수와 빠른 효과를 판피린의 특장점으로 하면서 효과적인 치료와 편리한 복용을 모두 충족하는 등 소비자 요구를 끊임 없이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동아제약 측의 설명이다.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액상 감기약 ‘판피린 큐 액’



편의점용 알약 제형의 안전상비약품 ‘판피린 티’

1961년, 모두를 위한 감기약 ‘판피린’ 출시
액상형 감기약 원조... 복용 편리해 휴대성↑
약국용 액상형, 편의점용 알약형 2가지 구분

캐릭터, 광고 문구 등 소비자 호감도 높아
약국에서 가장 많이 찾는 감기약으로 뽑혀
‘2024 브랜드파워’ 감기 약부분 1위 선정도

현재 동아제약은 판피린을 약국용 액상 제형의 판피린 큐와 편의점용 알약 제형의 판피린 티 2가지로 구분해 판매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지난 2012년부터는 안전상비약품 제도 도입에 따라 편의점용 알약 제형의 ‘판피린 티 3정’을 전국 편의점에 추가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특히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액상형 감기약 원조 품목으로 꼽히는 판피린큐는 물 없이 간편히 복용할 수 있으며 병 크기가 작아 여행이나 외출 시 휴대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결과, 올해 63주년을 맞이한 판피린은 국민편의과

발맞추며 오늘날 4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동아제약 대표 브랜드로 우뚝 설 수 있었다.

올해 3분기 기준 판피린은 약 100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지난 2023년 동기 대비 17.6% 증가한 규모다. 연간 매출을 살펴봐도 2021년 373억원, 2022년 483억원, 2023년 479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의 2023년 셀 아웃 데이터에 따르면, ‘판피린 큐’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감기약 중 소비자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앞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년 연속 판매 1위를 유지하는 독보적인 기록도 있다. 11년간의 판매 성과는 1초당 2.8명이 팔린 것으로 환산할 수 있고, 이 누적 판매량을 한 줄로 세우면 서울과 부산을 91회 왕복할 수 있는 거리에 해당한다.

올해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2024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감기약 부문 1위로 선정되기도 했다. 판피린은 특정 브랜드를 인식하거나 회상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브랜드 인지도’에서 최초 인지, 비 보조 인지, 보조 인지 등 세부 지표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특정 브랜드에 대한 호감 및 애착 정도를 나타내는 ‘브랜드 충성도’에서 브랜드 이미지, 구입 가능성, 선호도 등의 항목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판피린 브랜드 이미지는 최근 더욱 강화됐다. 브랜드 대표 색상인 빨강, 파랑, 골드 3색은 보호와 생명력, 치유와 신뢰, No.1 브랜드라는 의미를 갖췄다. 대표 자음인 ‘도’를 형상화한 디자인까지 더해져 판피린 광고 모델로 등장하는 ‘판피린 소녀’는 더욱 세련되기도 했다.

두건을 쓴 판피린 인형과 함께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광고 문구로도 친숙한 판피린은 단순히 아플 때 먹는 감기약의 의미를 넘어, 찬바람 부는 계절 누군가에게 혹은 나에게 걱정의 마음을 전하는 감기약이다.

동아제약 측은 “오랜 세월 동안 판피린을 사랑해 준 소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감기약 브랜드로서 정통성과 상징성을 지켜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1961년 판피린 국내 발매



1963년 액상형 판피린 출시



1977년 현재 출시 중인 병 모양의 첫 제품 ‘판피린S’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류종일 감독 “엄상백·전상현 제외 아쉬워... 선발 운영 4명으로” /사진 뉴시스
▲KBO, 선수 대표 초청해 ABS·피치클룩·체크스윙 관련 회의 진행

▲프리미어12 야구대표팀 28인 최종 명단 확정...엄상백·전상현 낙마
▲홍명보 다시 뽑으라는 문체부...절차적 하자 없다는 축구협회



▲김아림,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 첫 날 단독 선두
▲윤이나 3관왕 굳힐까...KPGA투어 시즌 최종전 8일 개막 /사진 뉴시스